

柔道

146

2026
여름호

2026 Aichi-Nagoya Asian Games

이 악문 한국 유도,
나고야 겨냥한 '진짜 승부' 준비한다

오르도소서 빛난
김종훈의 금빛 집념
2026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소년체전
첫 금메달, 첫 MVP
장석진·이혜원

CONTENTS

2026 SUMMER
VOL. 146



2026 SUMMER KOREA JUDO ASSOCIATION VOL.146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 통권 146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17호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특집

- 02 로드 투 아시안게임 2026
이 악문 한국 유도, 나고야 겨냥한 '진짜 승부' 준비한다

유도학개론

- 10 힘 vs 기술
국제 무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국제대회

- 12 2026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16 2026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국내대회

- 22 제30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6 2026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28 제17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30 2026 용인대학교총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유도대회
32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망주를 찾아서

- 34 소년체전 첫 금메달, 첫 MVP 장식진·이혜원

매트밖 사람들

- 38 스포츠윤리센터 장형겸·김현우 스포츠인권보호관

현장을 가다

- 40 2026 전국 KATA 심판·지도자 강습회

NEWS IN JUDO

- 42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RECORD

- 43 유도기록실
50 2026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이 악문 한국 유도, 나고야 겨냥한 '진짜 승부' 준비한다

한국 유도가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해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갔다. 진천선수촌에 모인 대표팀은 새벽부터 매트에 올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체력 훈련으로 막판 스퍼트를 더하고 있다. 유도 종주국 일본의 안방에서 치르는 대회인 만큼, 한 판 한 판에 거는 각오도 남다르다. 지난 항저우의 아쉬움을 가슴에 새긴 선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반드시 나고야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겠다.”*세계랭킹은 6월 15일 기준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한국 유도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7체급(-60/-66/-73/-81/-90/-100/+100kg), 여자 7체급(-48/-52/-57/-63/-70/-78/+78kg)의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유도 종주국 안방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 유도는 2024 파리올림픽을 기점으로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새로운 얼굴들이 주축으로 올라섰고, 파리올림픽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

세대교체는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과정에 있다. 지난 2년간 국제 무대에서 값진 경험을 쌓으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현재 남녀 전 체급에서 세계랭킹 TOP 4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이현지(+78kg급, 세계랭킹 2위)지만, 뒤를 받치는 선수들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그 성장의 결실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금메달 향한 남자 대표팀의 승부수

이하림(국군체육부대), 이준환(포항시청), 김종훈(양평군청), 김민중(양평군청)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대표팀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100kg급 김민중이다.

2024 세계선수권 우승과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은 아직 미완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당시 세계랭킹 1위 테무르 하리모프(타지키스탄)에 무릎을 꿇으며 동메달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 기억이 아이치·나고야행 동기부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있다. 김민중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술의 다양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에는 업어치기, 잡기 기술을 많이 구사했지만 단조로움을 느꼈다. 일본 선수들을 상대할 것을 대비해 등을 잡고 하는 기술, 허리와 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기술을 연마해 상대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했다.





이하림(왼쪽)

-90kg급 김종훈은 키 177cm로 헤비급 치고는 작은 편이지만 남다른 순발력으로 190cm대 거구들이 즐비한 무대를 평정하고 있다. 김종훈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25 파리 그랜드슬램이었다. 당시 세계랭킹 111위에 불과했던 그는 2023년 세계선수권 챔피언 루카 마이수라제(조지아)를 만났다. 그러나 업어치기 한판으로 그를 꺾으며 단숨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올해 2월 타슈켄트 그랜드슬램에서 동메달을, 4월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는 중국의 부허비리거를 안뒤축걸기 유효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김종훈 스스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당연히 아시안게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다. 지난 아시아선수권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일본과 맞붙을 것을 대비해 기술과 체력을 더 보완하고 있다.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고 했다.

이하림과 이준환도 메달을 노리는 강력한 카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60kg급 은메달리스트 이하림은 2018 자카르타 동메달, 2023·2024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동메달에 한때 세계랭



김민종과 이현지

킹 1위까지 오른 한국 경량급의 간판이다. 업어치기와 빗당겨치기, 그리고 한 번 잡은 흐름을 내주지 않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그의 강점이다. 풍부한 국제 경험에 대표팀 만형으로서 무게감까지 더해진 만큼, 항저우에서 아쉽게 놓친 금빛을 나고야에서 되찾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81kg급 이준환은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에 빛나는 선수다. 세계선수권 3년 연속 동메달을 따내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꾸준히 입증해왔다. 특히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는 대회 직전 입은 부상을 딛고 시상대에 오르는 투혼으로 강한 정신력까지 보여줬다. 기량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검증된 터, 관건은 허리 부상에서 얼마나 컨디션을 끌어올리느냐다. 그리고 이준환은 답을 내놨다. 6월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에서 톱 랭커들을 줄줄이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반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밖에 -66kg급 김찬녕과 -73kg급 안재홍, -100kg급 한주염도 다스호스로 메달을 노리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 부상 변수로 완전한 전력을 가동하지 못했지만, 진천선수촌에서 차근차근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황희태 감독은 6월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에 팀을 내보내 실전 감각을 점검했고, 8월에는 카자흐스탄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강호들과의 실전을 통해 최종 담금질을 마친 뒤 9월 나고야로 향한다는 구상이다. “최소 금메달 1개 이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황 감독의 말에서 비장함이 묻어났다.

설욕을 노리는 이현지, 부활을 알린 허미미

여자팀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지난 항저우 대회와 비교하면 새 얼굴이 대부분이다. 항저우에서 한국 유도의 유일한 금메달의 주인공은 여자 +78kg급 김하윤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78kg급 자리에 이현지가 들어섰다.

여고생 유망주에서 여전한 한국 여자 유도의 간판으로 떠오른 이현지는 세계랭킹 2위의 기량과 경험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생애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전임자가 남긴 금메달의 무게를 이어받아야 하는 만큼 기대도, 부담도 남다르다. 정성숙 여자대표팀 감독은 “(이현지는) 잔부상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경쟁력 있는 선수이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이현지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뉴신란(중국, 세계랭킹 6위)을 넘어야 한다. 4월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이현지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뉴신란은 중국 여자 유도 의 새로운 희망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설욕 의지가 남다른 이현지는 “아시아



김찬녕과 안재홍



허미미

선수권에서는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뉴신란을 다시 만난다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팔꿈치와 발 부위에 잔부상을 안고 있는 그는 “부상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지만 남은 기간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메달 기대주는 또 있다.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다. 2024 세계선수권 금메달과 파리올림픽 은메달로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지만, 지난해 3월 왼쪽 어깨 인대 수술 이후 긴 부침을 겪었다. 2025 세계선수권 2회전 탈락은 그 단적인 예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우승을 기점으로 부활의 날갯짓을 펼쳤고, 국가대표 선발전 정상을 밟으며 완전한 복귀를 공식화했다. 굳히기 기술이 한국 여자 유도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허미미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굳히기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정성숙 감독도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지금 몸 상태라면 허미미 역시 금메달을 노려볼 만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은 남녀 각 3명씩 6명이 출전하는 혼성 단체전에도 나선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은메달, 올해 아시아선수권 동메달을 따낸 만큼 단체전에서도 메달 사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장세운



김민중

만만치 않은 아시아 유도 판도

아시아 유도의 판도는 이미 한·일 양강 구도를 넘어섰다. 몽골은 아시아 유도 강자로 올라섰고,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올해 4월 중국 오르도스에서 열린 2026 아시아선수권대회가 그 단면을 보여줬다. 일본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 1위는 한국도, 중국도 아닌 몽골이었다. 금 3개, 은 1개, 동 2개. 몽골은 여러 체급에 걸쳐 고르게 메달을 쓸어담으며 아시아 유도의 새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지키스탄의 무히딘 아사둘로예프도 눈길을 끌었다. 불과 20세의 나이에 -73kg급 정상에 오른 그는 2025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우승에 이어 지난해 홈 그라운드 두산베 그랜드슬램 금메달, 이번 아시아선수권 우승까지 거머쥐며 중앙아시아 유도의 미래로 떠올랐다.

국제유도연맹(IJF)은 대회 결산에서 “아시아 유도는 계속해서 더 강하고, 더 깊어지고, 더 경쟁력 있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했다.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이 “중앙아시아의 성장세도 무시할 수 없다. 8월 카자흐스탄 전지훈련에서 그들의 유도를 집중적으로 접해보려 한다”고 말한 이유다.

그러나 진짜 변수는 따로 있다. 이번 아시아선수권에 불참했던 일본이 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는 최정예 전력으로 나선다. 남자부 -66kg에는 2020·2024 올림픽 2연패에 세계선수권 4회 우승자인 아베 히후미가 버티고 있고, -90kg에는 2025 올란바토르 그랜드슬램 우승에 2026 전일본선수권을 제패한 오카다 리쿠가 출전한다. 세계랭킹 16위 오카다 리쿠와 세계랭킹 6위 김중훈의 맞대결은 이번 아시안게임 유도 최대 빅매치로 꼽힌다.

여자부 역시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일본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홈 관중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등에 업은 일본이 전 체급 석권을 노리는 만큼, 한국의 금메달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일정으로 보는 나고야 4일

유도 종목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아이치 국제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 유도에는 모두 1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대회 첫날에는 여자 -48kg/-52kg, 남자 -60kg/-66kg에서 금메달 주인공을 가린다. 이하림과 김찬영을 비롯해 경량급 선수들이 이날 매트에 오른다. 이튿날에는 여자 -57kg/-63kg/-70kg, 남자 -73kg/-81kg 경기가 치러진다. 허미미와 김지수, 이준환 등이 출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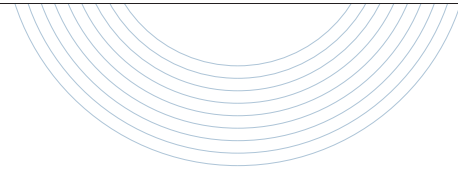
대회 사흘째가 우리 대표팀에 가장 중요한 날이다. 여자 -78kg/+78kg, 남자 -90kg/-100kg/+100kg가 한꺼번에 벌어지는데, 이현지와 김중훈, 김민중 등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들이 이날 매트에 오른다. 마지막 날에는 혼성 단체전이 열리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대단원을 장식한다.

한국은 1986년 유도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줄곧 강세를 보여온 유도 강국이다.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값진 금메달 1개를 수확하며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이제 선수들은 아이치·나고야에서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이치 국제 아레나의 시상대에서 빛날 활약이 기대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대표팀 명단

09월 30일	수요일	남자	-60kg	이하림	국군체육부대
			-66kg	김찬영	하이원유도
		여자	-48kg	정수진	용인대학교
			-52kg	장세운	KH그룹유도단
10월 01일	목요일	남자	-73kg	안재홍	남양주시청
			-81kg	이준환	포항시청
		여자	-57kg	허미미	경북체육회
			-63kg	김지수	경북체육회
			-70kg	김혜미	광주교통공사
			-90kg	김중훈	양평군청
10월 02일	금요일	남자	-100kg	한주엽	하이원유도
			+100kg	김민중	양평군청
		여자	-78kg	김민주	광주교통공사
			+78kg	이현지	용인대학교
10월 03일	토요일	혼성단체전			

***단체전 추가선수**
남자 : -73kg 이은결(부산군청), -90kg 김재민(한국마사회)
여자 : -57kg 신유나(제주특별자치도청)
+78kg 김하윤(안산시청)



**“나고야 하늘 아래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겠다”**

황희태 남파대표팀 감독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 훈련은 어떻게 해왔나. 체력과 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에도 주력했다.

부상자가 많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아시아선수권에서도 부상자가 생겨 3명 정도가 출전하지 못했다. 경기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에서 경기 감각을 쌓고 기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기술 다양성을 강조해왔는데, 어떻게 훈련하고 있나.

기술 보완도 중요하지만 위장 공격으로 지도를 받는 걸 가장 주의해야 한다. 엮어치기를 들어가면서 위장성 공격으로 지도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진천선수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다. 홈 그라운드 이점에 기술력도 뛰어나다. 중앙아시아의 성장세도 무시할 수 없다. 8월 카자흐스탄 전지훈련에서 그들의 유도를 직접 경험하며 적응 훈련을 가지려 한다.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를 꼽는다면.

이하림과 김민종의 메달이 기대된다. 이준환은 다크호스다. 기량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검증됐다.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와주는지가 관건이다. 최소 금메달 1개 이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상대가 누구든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 선수들은 상대가 약하면 긴장을 푸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을 꼭 명심했으면 한다.

각오 한마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금메달을 따고 나고야 하늘 아래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겠다.



**“일본도, 중국도 OK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정성숙 여파대표팀 감독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 선수들이 잔부상을 안고 있어 부상 부위를 계속 체크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기초 체력 강화와 잡기·굳히기 기술 훈련에 집중하는 한편, 파트너를 바꿔가며 다양한 유형의 상대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과 부상 방지를 위한 근력 보완,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게 지금의 핵심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는.

여자 유도는 일본이 초강세다. 그 다음이 중국이다. 각 체급마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한 나라들도 많아 방심할 수 없다.

금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를 꼽는다면.

이현지가 가장 기대된다. 허미미도 부상을 잘 털고 돌아왔다. 지금 몸 상태라면 금메달을 노려볼 만하다.

고질적 약점이었던 굳히기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

맞다. 이제는 적어도 굳히기 때문에 지는 일은 많이 없어질 거라 기대한다. 그동안 수비 위주의 굳히기로 일관했는데 이제는 공격적인 굳히기로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보려 한다.

중중국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라 부담이 클 텐데.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 등 큰 무대에서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시차가 없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내 역할이다. 선수들이 많은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팬들에게 한마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격려는 선수에게, 비판은 지도자가 받겠다. 하나하나 준비된 것들이 완성되고 있고, 이제 남은 목표는 메달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

나고야를 향한 담금질, 여름이 공부처다



한국 유도 대표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통상 2~3차례 전지훈련을 떠난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한국 유도 대표팀은 9월 아시안게임까지 국내외를 돌며 전지훈련에 나선다.

한국 대표팀의 경계 대상은 단연 일본이다. 안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전 체급 석권을 노리는 일본은 만반의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 대표팀도 일본에 대비해 맞춤형 훈련 스케줄을 짜고 있다. 훈련 상대도 주니어부터 대학, 실업까지 전 연령대를 폭넓게 가져간다.

남자대표팀은 이미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도쿄로 첫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황희태 감독과 22명의 선수들은 도쿄 국사관대학교에서 체력·기술·자유대련 훈련을 소화했다. -90kg급 김중훈은 “일본 선수들이 전통적인 유도 스타일을 많이 구사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일본 선수들의 습성을 파악할 수 있



었고, 근력과 체력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훈련이었다. 해외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 한국적인 유도 스타일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7월 초에는 여자대표팀이 도쿄로 향한다. 정성숙 감독은 “일주일 가량 실업 팀과 대학 팀을 번갈아가며 합동 훈련을 할 계획이다. 일본에도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 상대를 바꿔가면서 이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굳히기 연습에도 치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일본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남녀 대표팀, 한국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갖는다. 일본만이 아니다. 8월에는 남녀 대표팀이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중앙아시아 강호들에 맞춘 훈련이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유도회도 대표팀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쿄에서 시작해 다시 도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세 차례 전지훈련이 모두 끝나면 나고야가 기다린다. 황희태·정성숙 감독은 이 여름이 선수들에게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다. ㊦



힘vs기술 국제 무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세야 유도를 잘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말이기도 하다.

유도의 창시자 가노 지고로는 ‘유능제강’(柔能制剛), 즉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정신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현대 유도에서는 힘과 기술, 무엇이 더 중요할까.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

힘의 유도

유도에서 힘이 세면 무조건 이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유리하다. 강한 악력으로 도복을 제압하고, 폭발적인 힘으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 앞에서 버티기란 쉽지 않다. 특히 헤비급 무대에서는 묵직한 힘의 차이가 경기의 판도를 좌우하곤 한다.

상대의 균형을 먼저 흔들 수 있다면 기술의 성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하지만 힘에만 의존하는 유도는 한계가 뚜렷하다. 체력 소모가 극심할 뿐 아니라,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정교한 기술 없이 힘만 앞세우다가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기술을 걸지도 못한 채 반격을 허용하기 십상이다.

기술의 유도

기술의 유도는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상대가 밀고 오면 그 힘을 받아 넘기고, 뒤로 물러서면 그 흐름을 타고 기술을 건다. 타이밍과 중심 이동이 전부다. 유도 경기에서 작은 선수가 덩치 큰 상대를 가볍게 메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힘이 아니라 힘을 이용하는 것. 유도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이유다.



규정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었다

그렇다면 요즘 국제 무대는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을까. IJF(국제유도연맹)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손봤다. 2025 파리 그랜드슬램부터 적용된 새 규정이 적용됐다. 2016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유효’가 부활한 것이 핵심이다. 한판·절반이던 득점 체계가 한판·절반·유효로 세분화됐다. 서기 기술뿐 아니라 굳히기에서도 5초 이상 누르면 유효를 인정한다. 허리 아래에서 허벅지 내측까지 잡기와 한 손으로 도복을 잡은 상태의 베어허그도 허용됐다. IJF는 룰 개정의 목적을 “각 경기의 결정권을 선수들의 손에 쥐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효 부활 이후 유도계

에서는 “더 과감하게 기술을 시도하는 선수가 유리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경기 박진감이 훨씬 살아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눈에 띄는 흐름은 또 있다. 굳히기다. 서기 기술로 메치는데 그치지 않고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 굳히기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부쩍 늘었다. 상대를 바닥에서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다. 탈출을 반복하게 만들어 지치게 하는 것이다. 지쳐버린 상대는 결국에는 기술에서도 무너진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이 굳히기 기술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

남자유도대표팀 +100kg급 김민종은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기술 유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힘에 의존했다면, 요즘은 디테일과 기술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그렇다고 기술만이 정답은 아니다. 기술과 힘을 잘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업어치기, 메치기. 오랫동안 유도의 꽃으로 불려온 기술들이다. 지금도 그 위상은 변함없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국제 무대에서 변칙 기술을 연마하는 선수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이유다.

기술의 다양성을 두고 지도자들의 시각도 갈린다. A 실업팀 감독은 “정석 기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고착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B 실업팀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체력의 중요성을 먼저 꺼냈다. 그는 “근지구력, 유연성 같은 기초 체력이 골고루 갖춰

져야 좋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며 “기술은 여러 개보다 하나를 장인 수준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먼저다. 특히 하나가 완성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옵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러 기술을 뒤섞다 보면 오히려 위장 공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답은 없다. 선수마다, 체급마다 맞는 방식도 다르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체력이 무너지면 후반을 버티지 못한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기술이 없으면 그 힘을 쓸 곳이 없다. 나고야에서 맞닥뜨릴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강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매트 위에서 웃는 선수는 힘과 기술, 거기에 체력까지 고루 갖춘 선수다. 가노 지고로가 강조한 ‘유능제강’의 정신이 150년이 지난 나고야 매트 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

오르도스서 빛난 김종훈의 금빛 집념

2026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결산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중국 오르도스에서 2026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오는 9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를 앞둔 한국 유도에게 이번 대회는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 김종훈이 금메달로 자존심을 세웠지만, 여자 중량급 에이스들의 패배는 묵직한 숙제를 남겼다. 오르도스에서 확인한 희망과 과제를 짚는다.

*세계랭킹은 4월 19일 기준
글: 홍성한 기자 사진: 아시아유도연맹

벼랑 끝에서 뒤집은 김찬녕, 대표팀 첫 메달

대회 첫 메달 소식은 김찬녕(하이원유도)이 전했다. 대회 첫날 열린 남자 -66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찬녕은 자모샤리 베크무로도프(우즈베키스탄)를 상대로 12분 48초간 이어진 접전 끝에 조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생애 첫 아시아선수권 메달을 목에 걸었다.

16강부터 승승장구하던 김찬녕은 준결승에서 타지키스탄의 오비드 제보프에게 절반패를 당하며 아쉽게 동메달 결정전으로 향했다.

동메달 결정전 상대 베크무로도프는 대표팀 후배 안현우(한국체대)를 16강에서 꺾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경기 초반 2분 27초와 2분 54초에 연달아 지도를 받은 김찬녕은 지도 하나만 더 받으면 반칙패로 물러나야 하는 벼랑 끝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경기는 결국 골든 스코어 연장전으로 접어들었고, 11분 57초에 베크무로도프가 두 번째 지도를 받는 순간 흐름이 바뀌었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선 김찬녕은 12분 48초, 조르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유도 자존심 살렸다

김종훈, 값진 금메달

대회 셋째 날 남자 -90kg급에서 한국 유도 중량급 기대주가 국제무대 정상에 섰다. 김종훈(양평군청)은 결승에서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부허비리거(세계랭킹 127위)를 안뒤축결기 유효승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초반 두 선수는 적극적인 잡기 싸움과 견제를 주고받으며 지도 1개씩을 나란히 받는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긴 탐색전이 계속된 가운데 승부는 종료 1분 45초를 남긴 시점에서 갈렸다.

기회를 엿보던 김종훈은 부허비리거가 상체에 힘을 싣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의 중심이 앞으로 쏠린 틈을 겨냥해 왼발을 빠르게 집어넣어 안뒤축결기 공격으로 유효를 따냈고, 이후에는 굳히기 등으로 리드를 지키며 상대의 반격을 차분하게 봉쇄한 채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번 우승으로 김종훈은 세계랭킹 13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의 성장세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김종훈이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IJF 2025 파리 그랜드슬램이었다. 당시 그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루카 마이수라제(조지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남자 유도 중량급 간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세대교체 구도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 기세는 지난해 7월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로도 이어졌다. 당시 세계랭킹 3위였던 하즈예프 엘잔(아제르바이잔)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파리 그랜드슬램의 성과가 운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두 대회 연속 강호들을 제압하며 쌓은 경험은 이번 대회에서도 빛을 발했고, 결승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 능력으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황희태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장기인 업어치기가 상대에게 간파당할 것을 대비해 다른 기술을 잘 연마했다. 결승에서 안뒤축결기로 이긴 것만 봐도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알 수 있다”며 “작년과 비교해 기술 완성도가 높아졌고 근력도 좋아졌다. 근력이 좋아지면서 업어치기를 구사할 때 당기는 힘이 더 강해졌고, 전체적인 기술 구사 능력도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호평했다.



중량급 기대주 이승엽,

결승 문턱에서 아쉬운 은메달

남자 +100kg급에서는 이승엽(KH그룹유도단)이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세계랭킹 22위인 이승엽은 결승에서 유수포프 알리셰르(우즈베키스탄)와 맞붙었다. 두 선수는 상체 싸움에서 치열하게 힘을 주고받았고, 중반 이후 체력 소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수포프의 던지기 공격이 성공하며 유효가 선언됐다. 이승엽은 남은 시간 동안 스코어를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기술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값진 결승 진출로 +100kg급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



이승엽



부안군청 첫 국가대표 이은결,

메달 2개로 화답

이번 대회에서는 창단 2년 차에 접어든 부안군청 유도팀도 경사를 맞았다. 부안군청 소속 이은결은 남자 -73kg급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대회 마지막 날 혼성단체전에서도 대표팀의 3위 입상에 힘을 보태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메달로 장식했다.

이은결은 지난 3월 유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부안군청이 배출한 첫 국가대표가 됐다. 오랜만의 국제무대였지만 긴장감은 없었다. 개인전 1회전에서 토지예프 엘벡(우즈베키스탄)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으며 기분 좋게 출발한 이은결은 2회전에서 오드게렐 우란바야르(몽골)를 배대뒤치기 한판승으로 제압했고, 8강에서는 압둘로이 오리프(타지키스탄)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며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아사둘로예프 무히딘(타지키스탄)에게 안다리걸기로 유효를 내주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린 가오후이(중국)를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최종 3위를 차지했다.

고자람 부안군청 감독은 “이은결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며 부안군청과 대한민국 유도의 위상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D-100,

오르도스에서 확인한 희망과 과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남자 -90kg급 김종훈의 금메달 1개를 비롯해 여자 +78kg급 이현지와 남자 +100kg급 이승엽의 은메달 2개, 남자 -66kg급 김찬녕과 남자 -73kg급 이은결, 여자 -63kg급 김지수의 동메달에 혼성단체전 동메달까지 더해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일본 남자팀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대회라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김종훈의 값진 금메달로 대표팀은 사기를 끌어올렸다.

한국 유도는 오는 9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최소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희태 남자 대표팀 감독이 올해 초부터 줄곧 강조해온 키워드는 ‘기술의 다양성’이다. 그는 “업어치기 한 가지에 의존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반대쪽 기술과 연결 기술까지 갖춘 제2, 제3의 무기가 필요하다”며 “여름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더 정밀하게 가다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르도스에서 확인한 희망과 과제를 딛고, 한국 유도가 나고야를 향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

값진 경험 남긴 오르도스

여자 중량급 양대 에이스, 정상 문턱에서 멈추다

같은 날 치러진 여자 +78kg급에서는 한국의 두 에이스가 나란히 정상 문턱에서 멈췄다. 세계랭킹 1위 이현지(웅인대)는 결승에서 세계랭킹 13위 뉴신란(중국)에게 누르기 한판을 내주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맞섰지만, 결정적인 순간 뉴신란의 누르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승부가 기울었다. 앞서 같은 체급에 출전한 세계랭킹 4위 김하윤(안산시청) 역시 준결승에서 뉴신란에게 유효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현지와 김하윤은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한국 여자유도를 이끌어온 양대 축이다. 두 선수의 경쟁력은 여전하지만,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여자 유도의 판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이번 대회는 한국 여자유도가 정상을 지키려면 전력 분석과 맞춤형 훈련 등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일깨웠다. 잠시 주춤했지만, 두 에이스가 쌓아온 기량에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국 여자유도는 다시 정상에 설 것이다.



이현지



김하윤



금메달, 또 금메달! 칭기즈칸의 땅에서 정상에 선 한국유도

2026 올란바토르 그랜드슬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유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도 몽골에서 두 개나.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올란바토르에서 열린 2026 올란바토르 그랜드슬램에서 남자유도의 간판 이준환과 김민종이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건재를 알리는 우승이었다. 두 사람이 따낸 금메달은 다가올 아시안게임을 향한 기대를 한층 키웠다.

글: 홍성한 기자 사진: IJF(국제유도연맹)

돌아온 -81kg급 최강 이준환

“지난 1년은 더 강해지기 위한 재정비 시간”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남자 -81kg급 우승자 이준환(포항시청)이다. 우리가 알던 그 이준환이 돌아왔다. 화려한 플레이드, 특유의 화끈함도 예전 그대로였다. 무엇보다 대회 직전 세계랭킹 15위였던 그가 내로라하는 강자들을 차례로 연파하고 거둔 우승이기에 더욱 값졌다. 이번 -81kg급에는 시즌 초 세계랭킹 선두를 달린 티무르 아르부조프(러시아)를 비롯해 파리 그랜드슬램 챔피언 오이노 유헤이(일본), 전 세계챔피언 마티아스 카세(벨기에)까지



이준환

강자들이 총출동했다.

이준환은 대회 이틀째인 20일 결승에서 오이노 유헤이와 마주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맞붙어 서로의 습성을 훤히 꿰는 사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이어졌다. 오이노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이준환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특기인 왼손 업어치기를 시도하는 척했다. 어깨로 상대를 밀어 균형을 무너뜨린 뒤, 안뒤축걸기로 단숨에 승부를 마무리했다. 심판은 즉각 한판을 선언했다. 올해 첫 국제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는 순간이었다.

결승까지 오르는 여정도 만만치 않았다. 8강에서는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자 아르부조프를 안뒤축걸기 유효승으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전 세계챔피언 마티아스 카세를 한팔업어치기 한판으로 꺾었다. 매라운드를 치를수록 자신감과 날카로움이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이준환은 지난 1년간 허리, 무릎 부상 여파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래서 이번 우승의 의미가 더 깊다. 다시 강해지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건재를 증명했다. 결실은 숫자로도 나타났다. 이준환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단숨에 9계단 끌어올리며 6위로 도약했다.

이준환은 대회를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1년 만에 다시 선 세계무대다. 지난 1년은 더 강해지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준비했고, 그 과정을 금메달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훈

IJF(국제유도연맹)도 이준환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IJF는 이준환이 경기를 치를수록 자신감과 정확성, 날카로움을 더해 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이노와의 결승에서 빠른 방향 전환을 결집인 기술로 승리하며, 마치 큰 무대를 위한 준비를 마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극찬했다.

이번 우승의 이면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이준환은 기존에 주 무기로 쓰던 업어치기 대신 안뒤축 감아치기라는 변칙 기술을 새롭게 연마해 이번 대회에서 재미를 봤다. 남자대표팀 황희태 감독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릎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업어치기 기술을 정상적으로 구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뒤축 감아치기 등 변칙 기술을 연마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잘



김찬영



김민중

통한 것 같다.” 황 감독은 이준환의 달라진 경기 운영에도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 이준환의 약점이 자신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에게 종종 당하곤 했는데, 이번 대회에선 상대가 자신보다 잘하든 못하든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헤비급 괴물의 귀환

김민중이 ‘김민중’했다

금빛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중량급 간판 김민중(양평군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kg급 결승. 김민중의 상대는 이라클리 데메트라슈빌리(조지아)였다. 김민중은 앞선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이날 타소예프(러시아)를 허벅다리걸기 되치기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김민중은 초반부터 데메트라슈빌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끈질기게 빈틈을 노린 끝에, 정규시간 종료 39초 전 상대로부터 세 번째 지도를 끌어냈다. 우승을 확정 짓는 순간이었다. 1·2회전에서는 연달아 한판승을 거뒀다. 김민중 특유의 시원시원함도 마음껏 뽐냈다. 개인 첫 그랜드슬램 우승이라 의미가 남달랐다. 김민중 역시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9계단 끌어올리며 5위에 올라섰다.



김민중

은메달 소식도 반가웠다.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 남자 -90kg급을 제패한 김중훈(양평군청)이 그 주인공이다. 김중훈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무라오 산시로(일본)에게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이번 준우승으로 세계랭킹 3위까지 올라서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경량급에서는 -66kg급 김찬녕(하이원유도)이 패자부활전의 반전 드라마 끝에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이로써 한국유도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 2위에 올랐다.

이번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민종에 대해 황희태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민중 특유의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공격과 노련함 등이 단연 돋보였다. 우리가 알던 김민중다운 모습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다. 황 감독은 “사실 컨디션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몸 놀림이 좋았다. 자신의 능력치를 120% 이상 발휘해준 것 같다”고 칭찬했다.

올림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에서 거둔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핵심 요인으로 ‘정신력’을 꼽으면서, 선수들의 멘탈 무장을 거듭 당부했다. 황 감독은 “개인적으로 너무 훈련만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경기에 집중하고 멘탈적으로도 무장이 잘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멘탈이 잘 갖춰져 있어야 경기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며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7, 8월에 훈련 스케줄이 빽빽해 선수들에게는 힘든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한 멘탈을 유지해주길 바라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은 한국 남자 유도 대표팀에 커다란 반동의 신포탄이 되었다. 이제 대표팀의 목표는 단 하나,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놓쳤던 개인전 금메달을 되찾는 것이다. 황희태 감독도, 이준환과 김민

종도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아이치·나고야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장면을 함께 그리고 있다.

여자대표팀,

나고야를 향한 점검의 장

여자대표팀에게 이번 대회는 메달보다 실전 감각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여자유도 간판 +78kg급 이현지(용인대)가 빠진 가운데, 선수들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을 실전에서 점검하는 데 무게를 뒀다. 아시안게임 출전이 예정된 -48kg급 정수진(용인대), -52kg급 장세윤(KH필룩스),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 -63kg급 김지수(경북체육회)에게는 더없이 값진 실전 경험이었다. 메달 기대주 허미미는 2회전에서 멈춰 섰지만, 연습으로 다듬은 기술을 큰 무대에서 시험해 본 것만으로도 소득은 분명했다. 이번에 쌓은 경험은 모두 나고야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

“기대 이상 선전해준 선수들에게 고마워”

남자대표팀 황희태 감독, 부임 이후 최고 성적

남자대표팀이 거둔 이번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개의 금메달로 반동의 기지개를 켜다. 무엇보다 기대가 큰 이준환과 김민중이 나란히 정상에 섰다. 대표팀으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그림이다.

이번 성과는 황희태 감독에게도 더욱 뜻깊다. 지난 2021년 남자대표팀 감독직에 부임한 이후 국제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기 때문이다. 황희태 감독 체제에서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그랜드슬램과 같은 굵적굵직한 대회들에서 두 체급 이상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이 처음이다. 더욱이 최근 부상과 부진으로 힘을 못 썼던 기대주 이준환과 김민중이 반동의 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황희태 감독은 “우선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선전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사실 부상자가 많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부상에 대한 위험을 줄였고, 강한 정신력을 발휘해줘서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시안게임,



황희태 감독



허미미



매트 위의 청춘,
오늘도 한판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맞잡는다.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자리가 걸린 무대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도 주저하지 않는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언젠가 한판으로 돌아온다.

제30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상주에서 만난 젊은 유망주들을 담았다.



명승부의 연속, 상주 극장이 열렸다

제30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성인 국가대표 선발전을 방불케 하는 접전이였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경북 상주체육관 신관에서

제30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청소년 국가대표 자리가 걸린 무대인 만큼

300여 명의 유도 유망주들이 한 치 양보 없이 맞붙었다.

기합소리와 땀이 뒤엉킨 뜨거운 이틀,

누가 가장 눈부신 승부를 만들어냈을까.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신유미



이유진



백종우

무려 11분 대혈투,

이런 승부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상주 극장'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술한 명승부가 쏟아졌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끈 건 여자부 -52kg 결승, 신유미(용인대)와 백지호(한국체대)의 맞대결이었다.

초반부터 기 싸움이 대단했다. 신유미가 먼저 분위기를 잡았다. 장기인 굳히기로 백지호를 몰아붙이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후반에는 흐름이 바뀌었다. 발기술이 뛰어난 백지호가 굳히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어적인 자세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균형을 맞췄다.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던 두 선수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고, 끝내 서로를 쓰러뜨리지 못한 채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는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

다. 정규 시간 4분을 넘어 연장 7분대까지, 무려

11분이 넘는 대접전이였다. 관중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접전"이라고 말한 관계

자도 있었다.



다음이 없는 두 선수는 끝까지 거세게 맞붙었다. 11분 내내 어느 한쪽도 점수를 내지 못한 가운데 승부는 결국 '지도'에서 갈렸다.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선 신유미가 상대의 지도 2개를 유도한 데 이어 연장전에서도 1개를 더 얻어내며 반칙승을 거뒀다.

대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한 신유미는 "너무 힘들다"며 숨을 헐떡였다. "백지호 선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붙어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승부가 이어졌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신유미는 광명여고 시절부터 국가대표 후보선수에 발탁되는 등 촉망받는 경량급 유망주였다. 하지만, 2학년에 접어든 올해 무릎 부상으로 출전 흐름이 꺾기는 부침

을 겪었다. "올해 두 번째 대회 출전이다. 무릎 부상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

다"며 "끝까지 코치님께서 잘할 수 있다고 독려해

주셨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민선 교수님처럼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다"

올림픽 꿈꾸는 이유진의 도전

여자부 -48kg 결승전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였다. 이유진(한국체대)이 -48kg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수림(경기대)을 꺾고 시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이유진과 높이와 힘에서 우위를 점한 주수림. 둘의 맞대결은 정규 시간 4분으로는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연장전 끝에 이유진이 지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손가락 부상을 안고 출전한 이유진이었다. "부상이 심했었다. 긴장도 많이 했고, 평소처럼 잡기 기술 구사도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끝까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임하려 했다. 왼쪽보다 오른쪽 잡기 기술을 구사하려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돌아봤다.

국가대표 후보선수인 이유진의 시선은 이미 더 넓은 무대를 향하고 있다. 사비를 들여 중국 칭다오 그랑프리 출전을 결정했을 만큼 열정도 남다르다. "칭다오 그랑프리과 유러피언컵 프라하 국제청소년유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새로 연마한 말아업어치기와 강점인 발기술을 더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고 했다. 목표는 확고했다. "최종 목

표는 올림픽 출전이다. 조민선 교수님(한국체대)의 뒤를 잇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다. 국제대회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대부 +100kg는 백씨들이 장악?

백두산 이어 백종우, 새로운 강자로 등장

중량급 유망주 백종우(용인대)가 남자부 +100kg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따냈다. 16강에서 김상민(대성고)을 발기술 한판으로 제압한 백종우는 준준결승에서 김지용(한국체대)을 절반 2개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김영재(명석고)를 경기 시작 52초 만에 발기술 한판으로 눕히며 기세를 이어갔고, 결승에서도 차범(마산대)을 굳히기 절반 2개로 한판 승하며 정상에 올랐다.

남자대학부 +100kg는 백두산(한국체대)이 3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며 체급 최강자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백종우의 이번 우승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4월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백종우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



반등 우정 귀환

2026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가 남긴 세 장면

국토정중앙 양구는 해마다 봄이면 전국의 유도인들을 불러 모은다.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6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도 그랬다. 반등, 우정, 귀환. 양구의 매트를 수놓은 세 가지 장면을 돌아봤다. 글. 서호민 기자

부진 딛고 돌아온 경량급 기대주

이경하의 시즌 첫 금메달

이경하(제주도청)가 여자 일반부 -48kg급에서 시즌 첫 정상 을 밟았다. 대회 첫날 열린 결승전에서 라희원(고창군청)에 게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8강에서 이세영(대구시청)을 누르기 한판으로 제치고, 4강에서는 박서윤(고창군청)을 반칙승으로 꺾으며 결승에 올랐다. 지난 3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8 강 탈락의 쓴맛을 본 지 한 달 만의 반등이었다. 이경하는 위덕대 시절부터 경량급 기대주로 주목받아



왔지만, 올해 1차 선발전에서 8위에 그치며 국가대표 승선에 실패 했다. 꾸준히 입상권을 지켜온 선수였기에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일어섰다. “지난 화장기 대회 이후 부족한 점 을 많이 깨달았고 보완점을 연구했다. 이번 대회에선 틀어잡기 기술을 위주로 구사하되, 위장 기술을 자제하고 잡기 연습에 주력했다.” 그의 말에서 준비의 흔적이 묻어났다.

이경하는 “1차 선발전의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 제는 2년 뒤 LA 올림픽만 생각하려 한다. 올해 말 2 차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가대표 타이 틀을 되찾겠다”는 각오도 남겼다.

겨울을 함께 버틴 친구들

조운은·최우현의 동반 우승

서울송중초 조운은과 최우현이 남자초등부 -42kg급과 -54kg급 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조운은은 결승에서 하정후(김재범유 도관)를 발기술 유효로 제압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우현도 -54kg급 결승에서 이민준(사북초)을 누우며메치기 한판으로 높히 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뒤 둘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 다. 우정으로 일궈낸 동반 우승이었기에 기쁨도 배가됐다. 조운은에게 이번 우승은 양구평화컵 3연패라는 기록이기도 했다. 둘은 우승 소감을 전하면서도 서로를 칭찬하기 바빴다. 조운은은 “겨울에도 같이 붙어다니며 열심히 연습했는데 동반 우승을 차지 해 더욱 기쁘다”고 했고, 최우현도 “열심히 응원해준 윤은이에게 고맙다”고 화답했다. 서로의 장점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도 칭찬이 쏟아졌다. 최우현은 “윤은이는 발이 빠르고 연결 기술이 매끄럽다. 그래서 3년 연속 우 승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고, 조운은은 “우현이도 연결 기술 이 좋다. 하체 힘, 근력이 타고났다. 솔직히 부럽다”고 웃었다. 우정 을 나눈 둘은 국가대표라는 꿈도 함께 품었다. “앞으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 차근차근 성장해나갈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대부 -60kg급서 우승한 용인대 오상우 경기 모습. 용인대는 이번 대회서 6체급을 석권했다.

베테랑 지도자의 화려한 컴백

유도 명문 용인대 6체급 석권

10년 만에 용인대 유도부 지휘봉을 다시 잡은 정훈 감독이 단숨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용인대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대학부 4체급, 여 자대학부 2체급을 석권하며 총 6개의 금메달을 쓸어들었다. 대회 첫날 오상우(-60kg급)와 김찬욱(-66kg급)이 금메달을 따내 며 포문을 연 용인대는 이튿날도 기세를 이어갔다. -90kg급에서 는 이재명이 8강에서 같은 학교 유도빈을, 4강에서 김윤영(한국체 대)을 차례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 같은 학교 김세림을 누르기 후 굳히기 한판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100kg급에서는 최재민이 8강에서 박현우(영남대)를, 준결승에서 박승겸(경기대)을 누르기 후 굳히기 한판으로 연달아 제압한 뒤 결승에서도 임성민(용인대) 을 되치기 후 굳히기 한판으로 높히며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대학부에서도 최혜빈(-78kg급)과 양지민(-63kg급)이 같은 학 교 김다은과 양지언을 지도승과 굳히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금메달 을 추가했다. 결승 4경기가 모두 용인대 집안 싸움으로 치러질 만 큼 압도적인 전력이었다.

2016년 이후 용인대에 복귀한 정훈 감독은 우승의 기쁨보다 냉정 한 시선을 먼저 꺼냈다. “이번 대회를 보고 더 열심히 지도해야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하는 느낌이 강 하게 들었다. 특기생으로서 책임감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목표도 뚜렷했다. “올 시즌 목표는 전국대회 메달을 90~100%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이 용인대의 모습”이라며 “선수 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 록 나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남자초등부 -42kg급에서 우승한 조운은



저마다의 처음

청풍기를 물들인 금메달의 감동

제17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충북 청주시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2,200여 명이 개인전·단체전에 출전해

기량을 다했다. 굵직한 이야기거리가 쏟아진

이번 대회를 돌아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양윤서 기자

청풍기가 낳은 스타, 2년 만에 돌아왔다

여자일반부 -48kg급에서는 유주희(충북도청)가 정상에 올랐다. 유주희는 대회 4일차에 열린 결승전에서 김민주(안산시청)를 발다리 한판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과정 역시 압도적이었다. 8강에서 한수연(포항시청)을 굳히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4강에서 박서윤(고창군청)에 기관승을 거두며 결승까지 내달렸다. 8강부터 결승까지 연속 한판승, 군더더기 없는 우승이었다.

유주희는 이 대회와 인연이 남다른 선수다. 관산중 시절 청풍기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유주희는 이 대회를 발판 삼아 청소년대표부터 국가대표까지 성장곡선을 밟아왔다. 안방인 청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은 것이 그래서 더 각별하다.

“동계 훈련 때부터 잡기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했는데, 오늘 주효했다”고 돌아본 유주희는 “이번 우승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우진, 마침내 터진 첫 금메달

보성고 시절, 신우진(한국체대)은 -73kg급에서 1~2위를 다투던 촉망받는 유망주였다. 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 성장세가 더디지며 전국 대회 시상대와는 좀처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럼에도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묵묵히 노력을 이어갔고, 대학 입학 2년 만에 마침내 그 결실이 터졌다.

신우진은 남자대학부 -73kg급 결승에서 김기영(용인대)을 양소매업 어치기 유효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 상대 김기영에게 이전에 한 번 진 적이 있던 타라 설욕 의지도 남달랐다. 왼쪽 잡기 기술을 집요하게 구사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양소매업어치기 기술이 일품이었다고 하자 그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공을 들였던 기술이다. 소매업어치기만 죽어라 연습했다. 실전에서도 연습했던 효과가 드러났고 오늘 경기에서도 소매업어치가 있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신우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는 멈춤 없는 성장으로 도약을 완성해내겠다고 자신했다. 신우진은 “조금 뒤늦었지만 열심히 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연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통산 10번째, 전민석의 기록

전민석(울산생활과학고)이 남고부 -9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고등학교 진학 후 통산 10번째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컵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가장 높은 포디움에 선 것이다.

전민석의 주무기는 탄탄한 체격과 긴 팔을 활용한 안다리·허벅다리 결기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차례로 제압했다. “리치가 길다 보니 기술을 거는 데 유리한 점이 많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 강점을 살려 기술을 구사하려 했다”고 전민석은 설명했다. 꾸준한 훈련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쌓아 올린 10번째 금메달이었다.

3명이 만든 기적, 무극중 첫 출전 첫 우승

단체전에서 가장 눈길을 끈 팀은 충북 무극중학교 유도부였다. 선수수급의 어려움으로 16년간 여중부 단체전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던 이 팀이, 이번 대회 여중부 단체전에 첫 출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특히 여중부 단체전(5인조)에 단 3명의 선수만이 나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결승에서 전국 최강으로 평가받는 서울체육중을 꺾고 정상에 오른 점은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이보운(1년), 김태희(2년), 이빛파(3년), 단 세 명이 집중력과 팀워크로 빛어낸 결과였다. 팀을 이끈 박성호 지도자는 이번 대회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성과와 지도력을 함께 인정받았다. 🏆



무극중



양구에서 발견한 유망주들

2026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 유도대회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강원도 양구가 유도로 뜨거웠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용인대총장기다.

올해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까지 겹쳤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열정은

날씨 따위에 꺾이지 않았다.

글. 홍성한 기자 사진. 양구군 제공

남중부는 보성중, 여중부는 서울체중

남중부는 보성중 차지였다. 10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으니, 사실상 대회를 지배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 중 4체급은 금메달이었다. -48kg급 윤준혁, -51kg급 이규원, -60kg급 최원준, -81kg급 이하율이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윤준혁은 결승에서 김도원(연성중)을 절반 2개로 제압했고, 이규원은 연장 끝에 지도 2개로 김주원(도개중)을 따돌렸다. 최원준과 이하율은 각각 오준석(송도중)과 이동건(서울체중)을 눌렀다.

보성중은 금메달 4개 외에도 은메달 2개(-73kg급 방성혁, -90kg급 방병헌), 동메달 4개(-66kg급 김서준, -73kg급 박일규, -90kg급 김영훈, -90kg급 이준수) 등 총 10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다.

여중부에선 서울체중이 강했다. -45kg급 류예나를 시작으로



여중부 -52kg급에서 우승한 유소의



여고부 -78kg급에서 우승한 이채민

-52kg급 유소의, -57kg급 김진희, +70kg급 이서은까지 4체급을 석권했다. 류예나는 조은설(사북중)을 유효승으로 꺾었고, 유소의는 지민서(고성중)를 굳히기 한판으로 제압했다. 김진희와 이서은도 각각 윤수미(청주용암중), 임수경(금곡중)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보탰다.

철원 유도 형제, 나란히 메달 수확 '눈길'

형제는 용감했다. 성적 말고도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다. 전민성(신철원고, -73kg급)과 전민균(신철원고, -90kg급) 형제가 나란히 입상한 것이다.

만형 전민성은 남고부 -73kg급 결승에서 서울(서울체고)을 굳히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챙겼다. 막내 전민균은 준결승에서 한 판패를 당해 동메달에 그쳤지만, 올 시즌 첫 입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둘은 사실 세쌍둥이다. 둘째인 전민형까지 셋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유도를 해왔다. 셋 모두 KH스포츠 꿈나무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2019년에는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며 국가대표를 꿈꾸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불렀다.

삼형제는 “늘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데 따뜻한 응원을 받게 돼 뜻깊다. 결과뿐 아니라 인성도 좋은 선수로 성장해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전민균



전민성

경력 3년, 이채민이 보여준 가능성

여고부에서는 남녕고와 인천체고가 각각 금메달 2개씩 나눠 가지며 강자임을 입증했다. 그 중 -78kg급 이채민(인천체고)의 성장세는 따로 짚어볼 만하다.

이채민이 유도를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빠른 몸놀림과 파워, 타고난 운동 감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고등학교 1학년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냈고, 지난해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3월 회장기 우승에 이어 이번 용인대총장기까지 석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채민의 목표는 거침없다. “인천체고 소속으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우승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대표에 뽑혀 202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롤모델로 꼽은 이름은 허미미다. 선배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이 말 속에 담겨 있었다. 🍎



서울의 탈환, 새 얼굴들의 질주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남긴 것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미리 보고 싶다면 이들의 매트를 주목해야 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부산 부경대학교 체육관을 뜨겁게 달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도 경기가 그렇다. 어린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치열한 한판승이 이어진 끝에,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의 종합 우승으로 여정을 마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금메달 6개’ 서울특별시, 4년 만에 소년체전 종합 우승

서울의 기세가 무서웠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은 금 6개, 동 5개로 총 1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단연 독보적인 성적표였다. 이로써 서울은 2022년 충남 대회 이후 4년 만에 소년체전 최정상 자리를 탈환했다.

이번 우승은 초등부와 중등부 전반에 걸친 고른 활약이 바탕이 됐다. 남자초등부 -53kg급 최우현(서울송중초), 여자초등부 -36kg급 문서아(서울송중초), 남자중등부 -52kg급 장미르(개웅중), -66kg급 김동우(서울체중), -81kg급 이동건(서울체중), 여자중등부 -52kg급 유소의(서울체중)까지, 초등부 유망주부터 중등부 주축 선수들이 체급별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 6개를 합작했다.

이후덕 서울시유도회 전무이사는 “우선 작년에 아쉽게 2위를 했었는데 올해 종합 우승으로 아쉬움을 날려 기쁘다. 서울시유도회 이전

우 회장님과 임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잘 성장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유도를 빛낼 재목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순위에서는 충청북도가 금 3개, 은 2개, 동 2개로 2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금 2개, 은 3개, 동 4개로 3위에 올랐다.

“내 마음속 넘버원!” 옥천여중 손민서, 포커페이스로 3개 대회 연속 정상

소년체전은 한국 유도의 ‘다음(Next)’을 미리 엿보는 장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현장 관계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유망주가 등장했다.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노련한 경기운동을 보여준 손민서(옥천여중)다. 손민서는 여자중학부 -42kg급 결승에서 상대를 설 틈 없이 몰아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와 양구평화컵에 이어 이번 소년체전까지 올 시즌 3개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는 순간이었다. 대회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에 속하지만, 매트 위에서 그가 뿜어낸 존재감은 강렬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메달 추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손민서는 깃싸움부터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공격 루트를 차단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무리하게 큰 기술을 시도하기보다 철저히 계산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완성형 플레이어의 정석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스피드와 집중력이 승부를 가르는 -42kg급의 체급 특성을 고려할 때 손민서의 침착함은 독보적이었다.

현장 전문가들의 호평도 잇따랐다. 대회를 지켜본 한 유도인은 “내 마음속 넘버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학생 수준을 넘어선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멘탈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경기 내내 일관된 표정을 유지한다. 이제 겨우 2학년인 선수가 큰 무대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설명했다. 손민서는 “가장 큰 대회인 소년체전에서 우승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 남은 대회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돌풍을 넘어 태풍이 된 아이들 정선 사복초·중 유도부

이제 사복초·중 유도부를 단순히 이번의 주인공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폐광촌 유도부’라는 목격한 서사를 지닌 강원 사복초와 사복중 유도부가 다시 한번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 특히 사복초는 이번 대회를 통해 소년체전 3년 연속 금메달 배출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 중심에는 사복초 6학년 박지유가 있었다. 박지유는 여자초등부 -57kg급 강원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년도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 출신답게, 올해 춘계 초·중·고유도연맹전 올해 춘계 전국 초·중·고유도연맹전 우승에 이어 소년체전까지 접수하며 해당 체급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중등부에서도 활약이 이어졌다. 대회 첫날 사복중 3학년 엄현욱이 남자중학부 -73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힘을 보탰다. 최근 용인대총장기 전국유도대회 동메 달과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은메달을 따내며 기대주로 주목받 아온 엄현욱은 이번 소년체전에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



첫 금메달, 첫 MVP 장석진·이혜원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도 경기는 두 선수의 이름을 또렷하게 각인시키며 막을 내렸다. 과감한 체급 변화로 잠재력을 폭발시킨 장석진(탐클래스유도집)과 유도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전국 무대를 평정한 이혜원(안락중). 압도적인 활약으로 생애 첫 금메달과 MVP를 거머쥔 두 유망주를 만나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직접 들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하루 100번의 튜브 훈련이 만든 한판승

남자중등부 MVP | -90kg급 장석진 (탐클래스유도집)

이번 대회 남자중등부 -90kg급의 주인공은 단연 장석진이었다. 장석진은 과거 -81kg급에서 정체기를 겪었으나, -90kg급으로의 과감한 체급 상향 이후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소년체전은 그의 기량이 완전히 만개했음을 증명하는 독무대였다.

장석진의 가장 큰 무기는 중량급답지 않은 빠른 스피드와 타고난 탄탄한 피지컬이다. 상대 선수들이 중량급 특유의 힘을 앞세워 압박해 올 때마다, 장석진은 남다른 저돌성으로 오히려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피하지 않고 자신 있게 기술을 구사하는 적극적인 경기 스타일이 대회 내내 돋보였다. 8강에서 정도후(부안공명영유도관)를 굳히기 한판승으로 제압한 장석진은 준결승에서 이승현(삼선중)을 경기 시작 10초 만에 허리기술 한판으로 눕히며 파죽지세로 결승에 올랐다. 결



장석진

승에서도 임준형(동명중)을 상대로 양소매업어치기 한판승을 따내며 화끈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위기를 자신감으로 바꾼 장석진은 그렇게 생애 첫 소년체전 금메달과 함께 중등부 MVP 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생애 첫 소년체전 금메달에 이어 최우수선수상까지 거머쥘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첫 금메달이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늘 곁에서 이끌어준 김태훈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승전에선 업어치기가 주효했다. 경기 운영을 어떻게 준비했나.

대회 전부터 소매들어업어치기와 양팔업어치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업어치기는 내 주무기다. 다른 선수들보다 기술을 구사하는 속도가 빠르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다.

그야말로 땀으로 일궈낸 결실인데, 이번 금메달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도장에서 보냈다. 연습했던 시간에 대한 답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연습량이 엄청났다고 들었다.

업어치기 기술을 극대화하려고 매일 고무줄(튜브) 당기기를 100개씩 거르지 않고 했다. 나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다. 관장님을 비롯해 도장의 선생님들과 형들이 곁에서 훈련을 많이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사실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국대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성장의 발판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그렇다(웃음). 1, 2학년 때는 정말 못했다. 나에게서는 양구평화컵 대회가 터닝포인트였다. 당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크게 얻었고, 그때부터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유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했다. 멋있어 보인다고 유도를 배우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원래는 -81kg급이었는데, -90kg급으로 체급을 올린 이유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하면 -81kg급에서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다.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과감하게 체급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다. 체급을 올린 직후에는 상대 선수들의 힘이 워낙 강해서 적응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나만의 스피드와 피지컬을 살려 중량급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부모님께서 좋은 피지컬을 물려주신 덕분이기도 하다(웃음).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로서, 앞으로 채워나가고 싶은 부분과 최종 꿈은 무엇인가.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 다리 기술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하고, 장기인 업어치기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최종 꿈은 당연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다. 체급은 다르지만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김민중(양평시청) 선수를 무척 존경한다. 그 악바리 같은 끈기와 지치지 않는 노력을 닮고 싶다. 훗날 김민중 선수처럼 한국 유도 중량급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간판선수가 되겠다.



이혜원

경합을 꿈꾸던 소녀, 유도 시작 2년 만에 소년체전 MVP가 되다

여자중등부 MVP | -63kg급 이혜원 (안락중)

여자중등부 -63kg급에 출전한 이혜원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선수 중 하나다. 초등학교 시절 주짓수와 수영으로 다져진 독보적인 신체 밸런스와 힘을 바탕으로, 매트 위에서 상대 선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해 나갔다. 특히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잡기 싸움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공격 루트를 원천 차단했다. 이혜원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은 누르기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데 있었다. 16강에서 박시우(입석중)를 누르기 한판승으로 잡아 낸 것을 시작으로, 8강 이다겸(대전체중), 준결승 홍채아(신성여중), 결승 김다혜(통영중앙중)까지 4경기를 모두 누르기 한판승으로 장식했다. 훈련 과정에서 준비했던 허벅다리걸기나 허리후리기 같은 큰 메치기 기술을 실전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선수 본인은 아쉬워했지만,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 한판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고향 부산에서 당당하게 MVP 대관식을 치렀다.

소년체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고향인 부산에서 열려 더 박탈 것 같은데.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큰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가 자란 고향 부산에서 이런 결과를 내서 두 배로 기쁘다.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출전한 4경기 모두 '전 경기 한판승'이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많은 분이 칭찬해 주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경기 내용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웃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허벅다리걸기나 허리후리기 같은 큰 기술들을 정말 많이 연습했다. 실전에서 이런 메치기 기술들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굳히기 위주로 경기가 풀려 준비한 걸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유도 전에 주짓수를 먼저 배웠다고 들었다. 유도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나.

초등학교 때 주짓수를 하다가 6학년 말부터 유도를 시작했다. 어릴 적 장래희망이 '경찰공무원'이었다. 여경들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다. 경찰이 되려면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도만큼 완벽한 종목이 없었기에 유도 매트에 발을 들이게 됐다.

주짓수와 유도를 모두 겪어본 선수가 말하는 유도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가.

유도가 확실히 움직임과 역동성이 훨씬 크다. 무엇보다 상대를 공중에 띄워 시원하게 메치는 짜릿함이 있다. 해보면 유도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다(웃음).

유도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전국 무대 MVP가 됐다. 폭풍 성장의 비결이 궁금하다.

안락중 조광철 감독님과 전임 김정훈 감독님의 지도 덕분이다. 내가 늦게 시작한 만큼 기초를 단단하고 꼼꼼하게 다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다. 그 가르침 덕분에 작년부터 서서히 메달을 따기 시작했고, 마침내 소년체전에서 최고의 상까지 받게 됐다.

경기 내내 상대를 꼼짝 못 하게 만드는 잡기 싸움이 돋보였다.

평소 훈련할 때부터 잡기 기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잡기 컨디션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 경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풀린다. 앞으로 잡기 기술을 더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나만의 절대적인 무기로 만들 생각이다.

남들보다 힘을 쓰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본

인이 생각하는 신체적 장점은 무엇인가.

다른 선수들과 붙었을 때 힘에서 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는 게 장점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수영이나 주짓수 같은 운동을 다양하게 했던 게 도움이 됐다. 몸의 근육이랑 밸런스가 잘 잡혀서 유도할 때도 확실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

이번 MVP 수상으로 어깨가 무거워졌을 것 같다.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솔직히 금메달을 따고 나니 다음 대회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살짝 생기기도 한다(웃음). 하지만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늘 그래왔듯 '꾸준함'을 무기로 매 순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MVP 시상식





현장의 온기, 선수 곁에 서다

스포츠윤리센터 장형겸·김현우 스포츠인권보호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도 경기가 열린 5월 28일과
29일, 부경대학교 체육관
한켠에는 유니폼도, 도복도 입지
않은 두 사람이 조용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
소속 장형겸·김현우
스포츠인권보호관이다. 승패와
메달이 주인공인 대회 현장에서
이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선수가 안전한가, 존중받고 있는가.
그것이 이들의 일이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만나서 반갑다. 소속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어떤 곳인가.

장형겸·김현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존재를 모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이 기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보호관을 대회 현장에 직접 파견해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스포츠인권 관련 법령의무교육도 담당한다.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인권보호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나.

김현우 한마디로 '현장을 직접 보는 사람'이다. 선수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인권 관련 이슈는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단순히 살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 관계자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보호관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나 역량이 필요한가.

김현우 아무래도 운동 선수 출신을 선호한다. 현장의 문화와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야 세밀한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어서다. 나 역시 사격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스포츠행정 분야로 넘어왔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

장형겸 인권보호관은 신고 접수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신고 접수와 조사는 센터 내 별도 조사실과 조사관이 담당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을 배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와 해당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다. 인권보호관의 역할은 그 이전 단계,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키는 것이다.

유도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지점이 있다면.

장형겸 종목마다 인권침해의 양상이 다르다. 유도는 경기 전에 계체를 하는데, 속옷 착용 기준 같은 부분이 선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국제유도연맹과 대한유도회에서 관련 매뉴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실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현우 유도는 '예(禮)'를 근간으로 하는 종목이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선수들에

게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 그 자체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문화적 기반이 된다. 다른 종목에 비해 사건 발생 비율이 확연히 낮은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

장형겸 현장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다. 모니터링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업무가 어려워진다.

반면, 보람찬 순간은?

김현우 역설적이지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도는 타 종목보다 현장에 안전요원과 운영요원이 더 많이 배치된다. 대한유도회가 그만큼 현장 안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김현우 결국 교육이다. 심판 강습회나 규칙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사전에 인식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포츠윤리센터도 종목별로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이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장형겸 유도는 상임심판 수가 타 종목보다 많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스포츠 인권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교육과 현장 경험이 쌓여야 한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스포츠인권 수준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소년체전을 직접 돌아보며 어떤 걸 느꼈나.

장형겸·김현우 유도 현장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커피차가 운영될 만큼 따뜻한 현장이었고, 관중석도 빈자리 없이 꽉 찼다. 그 열기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다. 많은 눈이 쏠리는 자리일수록 선수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



‘동작을 넘어 본질’ 영상으로 배운 KATA의 진짜 기준 2026 전국 KATA 심판·지도자 강습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영상을 보고, 기준을 따지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 5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전국 KATA 심판·지도자 강습회 풍경이다.
1급·2급·국제심판 자격을 갖춘 심판과
전국 각지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정 기준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KATA
발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글. 이상준 기자

기술만 봐선 모른다 KATA 심판의 세계

강습회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굳히기본, 매치기본, 되치기본, 부드러운본, 호신
의본, 강도관호신술까지 KATA 6개 종목의 심판 규정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종목마다 약
7~10분간 경연이 펼쳐지는 KATA는 기술의 성공 여부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 동
작의 정확성, 숙련도, 거리와 속도, 위치와 방향, 호흡, 전체적인 흐름, 복장 상태까지 다
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KATA는 세밀하고 복합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판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과만 접하면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고 오해하기 쉽
다. 심판과 지도자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고 이를 선수 지도에 반영하는 과정이 경기의 신
뢰성을 높이는 데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이번엔 달랐다 실전 영상 중심의 교육

이번 강습회가 달랐던 건 방식이었다. 기존 강습
회가 기술의 원리와 동작 설명 중심이었다면, 이
번에는 실제 경기 영상을 활용한 실전 중심의 교
육으로 채워졌다. 점수 산정과 감점 기준을 실제
사례로 풀어나며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
점을 맞췄다.

강습회를 진행한 서명근 대한유도회 KATA부위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다양한 팀들이
고르게 입상하면서 지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
지만, KATA 평가의 세부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한 채 외형적인 동작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
한 경기의 실수 사례 영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채점과 평가 점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강습을 진행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강습회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판정 결과를 두고 현장에서 의문이 제
기될 때마다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지도자들에게 이번 강습회는 실질적인
답을 얻는 시간이 됐다.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이
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공정한 심판은 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은 선수의 성장을 이끈다. 이번 전국
KATA 심판·지도자 강습회가 심판 역량 강화는 물론 지도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대한민국 KATA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꾸준한 연
구와 교육, 현장 중심의 기준 정립이 이어질 때 KATA는 더욱 신뢰받는 종목으로 나아갈
것이다. 📌

2026년도 제2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6년도 제2차 정기승단심사가 5월 28일에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에서는 8단 2명을 비롯해 총 3,617명이 합격하였다.

승단인원			
8단	2명	2단	539명
7단	6명	초단	1,391명
6단	7명	소년3단	28명
5단	28명	소년2단	259명
4단	55명	소년초단	1,193명
3단	174명		

유도 청소년대표 및 꿈나무선수 선발

2026 유도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1명)	김대봉(도개중·고등학교 감독)
전문지도자(5명)	조상훈(온양중학교 코치), 양성우(대전대성중학교 코치), 최혁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코치), 정다운(제주유도회관 코치), 김민영(철원여자중학교 코치)
체력트레이너(2명)	소미(서울체육중학교 코치), 성문기(영양초등학교 감독)
선수/ 남자(28명)	-48kg 이동건(신현중), 정태무(애월중), 이익리(온양중), 윤준혁(보성중), 권대환(청주대성중)
	-51kg 박익겸(신현중), 이준(부평서중), 이규원(보성중), 김주원(도개중)
	-55kg 최민수(경민중), 최현성(청라중)
	-60kg 우연재(금호중), 김민준(신현중)
	-66kg 김서준(보성중), 김동우(서울체중), 윤지호(부평서중), 김도윤(보성중)
선수/ 여자(28명)	-73kg 엄현욱(사북중), 락일규(보성중)
	-81kg 이하율(보성중), 이동진(서울체중)
	-90kg 양준훈(한라유도클럽), 장석진(탐라레스유도), 최윤범(성남중), 노윤근(부평서중)
	+90kg 박지훈(부평서중), 김재원(홍천유도스포츠클럽), 김형주(태장중)
	-42kg 손민서(옥천여중), 황하율(신현여중)
선수/ 여자(28명)	-45kg 류예나(서울체중), 양아름(애월중), 김슬아(사북중), 조은실(사북중)
	-48kg 장효인(신현여중), 조서현(청주용암중)
	-52kg 오비에푸나레이첼우(경민중)
	-57kg 김진희(서울체중)
	-63kg 김민지(아시아스포츠클), 배하윤(광문중), 박민주(SKY유도관)
선수/ 여자(28명)	-70kg 김나윤(대전리중), 김혀원(산창여중), 양서영(경민여중)
	+78kg 임수경(금곡중), 이서은(서울체중), 문다희(귀일중)

2026 유도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1명)	임희대(청라중·고등학교 감독)
전문지도자(6명)	강명덕(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코치), 권성훈(신흥초등학교 코치), 이성균(문선초등학교 코치), 김영호(동주초등학교 코치), 최수희(남수원초등학교 코치), 홍진주(흥덕초등학교 코치)
의무트레이너(1명)	이동영(리엔스트레칭스튜디오 대표)
선수/ 남자(21명)	-36kg 하주현(메이유도멀티짐), 김준수(복삼초), 김하준(신제주유도스쿨)
	-42kg 이하람(인천산삼초), 조윤은(서울송중초)
	-48kg 박도윤(삼양초), 남사우(영동이수초), 김정후(남양초금곡초)
	-54kg 최우현(서울송중초), 김건우(신금초), 홍현준(인천산삼초)
	-60kg 윤정후(양학초), 이지환(부안초)
선수/ 여자(17명)	-66kg 최찬영(부안초), 이도윤(사북초), 탁가람(사북초)
	+66kg 김강민(노형초), 박수범(청춘유도관(영경정)), 김지호(기장군K-유도스포츠클럽)
	-36kg 문서아(서울송중초), 배수현(철원초)
	-40kg 백서진(서울송중초), 안소율(도봉초)
	-44kg 박별하(파이널유도멀티짐(한보라)), 김도희(탑동초)
선수/ 여자(17명)	-48kg 김예빈(한라유도클럽), 이하율(철원초), 정아름(동주초)
	-52kg 박지유(사북초), 김예나(동남초), 한해솔(신제주유도스쿨)
	-57kg 이시우(삼양초), 조효정(남수원초)
	+57kg 정예은(도천초), 전민지(용인대국민유도관)

2026 KATA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이수자 명단

• 일시 : 2026년 5월 10일 • 이수인원 : 33명

시·도	명단
서울(8)	원유철, 김현호, 김덕영, 이정원, 김태호, 신영균, 이승원, 박지연
대구(5)	조재현, 유현윤, 이현백
경기(11)	선우경, 권오욱, 고광철, 강상준, 박상현, 양다습, 최승호, 황선호, 유지오, 김태현, 김오태
경남(3)	조영진, 김동건, 허교영
부산(4)	전만균, 최주영, 안치국, 전영환
강원(2)	엄명희, 심예진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2026. 3. 30.(월)~31.(화)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55kg	최우진 (대전체육고등학교)	이태민 (인천체육고등학교)	서유노 (서울체육고등학교)
-60kg	박지을 (광주체육고등학교)	김익진 (부산체육고등학교)	전민규 (서울체육고등학교)
-66kg	김태민 (경남체육고등학교)	노을호 (부산체육고등학교)	김동현 (충북체육고등학교)
-73kg	허아진 (서울체육고등학교)	전진술 (인천체육고등학교)	손민수 (충북체육고등학교)
-81kg	이지우 (남녕고등학교)	조호영 (경기체육고등학교)	주연성 (충남체육고등학교)
-90kg	유기열 (서울체육고등학교)	박준경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준서 (경남체육고등학교)
-100kg	박근호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김동영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100kg	문기탁 (부산체육고등학교)	이인용 (충남체육고등학교)	장시환 (남녕고등학교)
무제한	박근호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노진규 (인천체육고등학교)

체급	1위	2위	3위
18세이하부(여고부)			
-48kg	김혜민 (인천체육고등학교)	손예원 (서울체육고등학교)	안설아 (경북체육고등학교)
-52kg	서정안 (경남체육고등학교)	권세현 (서울체육고등학교)	권다윤 (인천체육고등학교)
-57kg	이재경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창아 (충북체육고등학교)	김예빈 (인천체육고등학교)
-63kg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곽유주 (남녕고등학교)	최연우 (경기체육고등학교)
-70kg	장해운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성아 (부산체육고등학교)	ngamsogt munkhushen (인천체육고등학교)
-78kg	이채민 (인천체육고등학교)	최윤서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정은 (경남체육고등학교)
+78kg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최보민 (경기체육고등학교)
무제한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이채민 (인천체육고등학교)	김하은 (광주체육고등학교)

제54회 춘계전국초·중·고등학교유도연맹전

2026. 3. 30.(월)~4. 4.(토) 전남, 목포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12세이하부(남초부)			
-36kg	이규하 (안철용유도관)	임태빈 (미스터스포츠투도팀)	최지현 (대구태현중학교)
-42kg	하정후 (김재범유도관)	서현 (J&Y유도아카데미)	이정민 (사북초등학교)
-48kg	이하람 (인천삼산초등학교)	김도훈 (대구산격초등학교)	임강민 (한라유도클럽)
-54kg	홍현준 (인천삼산초등학교)	이로운 (김재범유도관)	박배성 (대구산격초등학교)
-60kg	홍재민 (사북초등학교)	마우성 (본촌초등학교)	강우준 (한라유도클럽)
-66kg	이도윤 (사북초등학교)	이승훈 (전주인후초등학교)	정우주 (영광초등학교)
+66kg	최효준 (사북초등학교)	김지호 (기장군K-유도스포츠클럽)	이지형 (남양초금곡초등학교)
12세이하부(여초부)			
-32kg	이나은 (안철용유도관)	이하을 (인천삼산초등학교)	박현서 (사천초등학교)
-36kg	김민솔 (안철용유도관)	백라희 (김해활천초등학교)	박소윤 (사천초등학교)
-42kg	송채운 (합천가야초등학교)	이서진 (서울용암초등학교)	김세아 (경신아리유도클럽)
-48kg	김예빈 (한라유도클럽)	김슬 (대구태현초등학교)	손현서 (전주인후초등학교)
-57kg	박지유 (사북초등학교)	한해솔 (신재유도스쿨)	이유민 (인천삼산초등학교)
+57kg	정예은 (도천초등학교)	김서현 (인천삼산초등학교)	-
15세이하부(남중부)			
-45kg	강서준 (블라유도센터)	조하민 (광주체육중학교)	김태훈 (경민중학교)
-48kg	문주빈 (경스유도클럽 본점)	김동범 (제주서중학교)	안승찬 (광주체육중학교)
-51kg	윤준혁 (보성중학교)	안우영 (한라유도클럽)	이준 (부평서중학교)
-55kg	정준모 (전북중학교)	장미르 (개웅중학교)	조하원 (삼성중학교)
-60kg	김민준 (신현중학교)	신예준 (신철원중학교)	최민수 (경민중학교)
-66kg	사광도윤 (경민중학교)	김서준 (보성중학교)	유주현 (신현중학교)
-73kg	여도현 (신현중학교)	곽일규 (보성중학교)	최무권 (용운중학교)
-81kg	이하을 (보성중학교)	김태현 (전북중학교)	최화찬 (개웅중학교)
-90kg	양준훈 (한라유도클럽)	류원희 (덕원중학교)	김지웅 (대전대성중학교)
+90kg	민병선 (통지중학교)	박지훈 (부평서중학교)	황태산 (광주문산중학교)

체급	1위	2위	3위
15세이하부(여중부)			
-42kg	김지형 (제주서중학교)	허서람 (신원여자중학교)	황하율 (신원여자중학교)
-45kg	장서영 (광주체육중학교)	고다연 (노형중학교)	김기은 (광문산중학교)
-48kg	조서현 (청주용암중학교)	이채연 (삼성중학교)	장효인 (신원여자중학교)
-52kg	김서영 (삼성중학교)	서다은 (노형중학교)	임아윤 (경기체육중학교)
-57kg	김안수 (산창여자중학교)	김정민 (예림중학교)	유미슬 (광주체육중학교)
-63kg	김다혜 (동명중앙중학교)	홍채아 (신성여자중학교)	박민주 (SKY유도관)
-70kg	김나윤 (대전리중학교)	양서영 (경민여자중학교)	김규미 (남해여자중학교)
+70kg	임수경 (금곡중학교)	문다희 (귀일중학교)	정예림 (안변중학교)
18세이하부(남고부)			
-55kg	이기운 (대성고등학교)	최민규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조승우 (경민고등학교)
-60kg	이유찬 (도개고등학교)	송세현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태산 (비봉고등학교)
-66kg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이현겸 (영구유도스포츠클럽)	유헌국 (송도고등학교)
-73kg	전민성 (신철원고등학교)	임채호 (비봉고등학교)	김주혁 (경민고등학교)
-81kg	백준호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건 (우석고등학교)	김세진 (송도고등학교)
-90kg	전민석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김준재 (목포고등학교)	박상혁 (명석고등학교)
-100kg	김경태 (명석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이은상 (남녕고등학교)
+100kg	김영재 (명석고등학교)	김민준 (경민고등학교)	김성룡 (원광고등학교)
무제한	전민석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김경민 (송도고등학교)	박근호 (경남체육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45kg	서아름 (형곡고등학교)	박예민 (부산경호고등학교)	안서연 (경민고등학교)
-48kg	손예원 (서울체육고등학교)	임연 (남녕고등학교)	정이연 (서울체육고등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고등학교)	심은진 (도개고등학교)	정지호 (경영여자고등학교)
-57kg	문지현 (남녕고등학교)	이시현 (영서고등학교)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63kg	이아은 (도개고등학교)	한울겸 (철원여자고등학교)	양태희 (도개고등학교)
-70kg	장해운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서현 (남녕고등학교)	강지윤 (남녕고등학교)
-78kg	이채민 (인천체육고등학교)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최윤서 (경기체육고등학교)
+78kg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정지원 (경북체육고등학교)	장윤서 (대구체육고등학교)
무제한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강지윤 (남녕고등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2세이하부(남초부)	사북초등학교	대구산격초등학교	안철용유도관
12세이하부(여초부)	인천삼산초등학교	안철용유도관B	안철용유도관A
15세이하부(남중부)	보성중학교	광주체육중학교	신현중학교
15세이하부(여중부)	광주체육중학교	신원여자중학교	청주용암중학교
18세이하부(남고부)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남녕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KATA 개인전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메치기 본	안성철	윤건우	서은결
부드러운 본	김은혁	임채린	명근유도관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되치기본	함승원	이성재	이승원유도관
굳히기 본	조강해	신민준	박민호

2026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2026. 4. 13.(월)~18.(토)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체급	1위	2위	3위
12세이하부(남초부)			
-36kg	김준수 (북상초등학교)	김태민 (김해범유도관)	김태건 (사북초등학교)
-42kg	조윤은 (서울송중초등학교)	허정후 (김해범유도관)	최원희 (북상초등학교)
-48kg	박도윤 (삼양초등학교)	이형준 (한대유도관)	김정후 (남양주국초등학교)
-54kg	최우현 (서울송중초등학교)	이민준 (사북초등학교)	김민준 (부안초등학교)
-60kg	윤정후 (양학초등학교)	이지환 (부안초등학교)	박지한 (전북스포츠클럽)
-66kg	이도윤 (사북초등학교)	탁가람 (양학초등학교)	문성현 (북상초등학교)
+66kg	박수범 (청운유도관(연경점))	홍현택 (양학초등학교(가평스포츠센터))	김지호 (가평중학교(가평스포츠센터))
12세이하부(여초부)			
-32kg	김예성 (서울염암초등학교)	박유나 (사북초등학교)	권윤아 (양학초등학교(가평스포츠센터))
-36kg	문서아 (서울송중초등학교)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배수현 (철원초등학교)
-40kg	백서진 (서울송중초등학교)	최지아 (영동아수초등학교)	김세아 (장산아리유도클럽)
-44kg	박별하 (마포유도동(동점)한반도)	김도희 (탐양초등학교)	황유진 (광안터유도관)
-48kg	김예빈 (한라유도클럽)	윤솔 (산철원초등학교)	이하솔 (철원초등학교)
-52kg	김예나 (동남초등학교)	윤은서 (영동아수초등학교)	김이진 (가남초등학교)
-57kg	이시우 (삼양초등학교)	김지은 (대구산천초등학교)	박지유 (사북초등학교)
+57kg	전민지 (용인대국민유도관)	윤현서 (덕계초등학교)	양세은 (탐양초등학교)
15세이하부(남중부)			
-45kg	이동건 (신현중학교)	강태원 (청라중학교)	정태후 (애월중학교)
-48kg	권대환 (청주대성중학교)	한재민 (비평중학교)	문준혁 (경주동중학교)
-51kg	박익성 (신현중학교)	이규원 (보성중학교)	김주원 (도개중학교)
-55kg	최현성 (청라중학교)	최우주 (물금영아중학교)	이태민 (영동중학교)
-60kg	김민준 (신현중학교)	우언재 (금호중학교)	김도윤 (보성중학교)
-66kg	김서준 (보성중학교)	이예성 (대평중학교)	고예찬 (광주체육중학교)
-73kg	고경서 (서울체육중학교)	엄현욱 (사북중학교)	고혜성 (전북중학교)
-81kg	이하솔 (보성중학교)	오준혁 (금호중학교)	박건우 (후평중학교)
-90kg	임준형 (동명중학교)	장석진 (탐클래스유도)	김민찬 (대전체육중학교)
+90kg	김형주 (대정중학교)	김재원 (홍천유도스포츠클럽)	신지율 (도개중학교)
15세이하부(여중부)			
-42kg	손민서 (옥천여자중학교)	안소정 (청라중학교)	안예은 (애월중학교)
-45kg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양아름 (애월중학교)	김슬아 (사북중학교)
-48kg	최효인 (신현여자중학교)	최세인 (신현여자중학교)	조서연 (청주용안중학교)
-52kg	유소의 (서울체육중학교)	조은설 (사북중학교)	손채빈 (철원여자중학교)
-57kg	김진희 (서울체육중학교)	윤수미 (청주용안중학교)	김나은 (이평덕체육관)
-63kg	김민지 (아시아스포츠포)	이빛파 (무곡중학교)	박민주 (SKY유도관)
-70kg	김나윤 (대전리중학교)	김태희 (무곡중학교)	오한별 (SKY유도관)
+70kg	문다희 (귀일중학교)	한서진 (대전체육중학교)	박미나 (아시아스포츠포)
18세이하부(남고부)			
-55kg	이기웅 (대성고등학교)	조현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박건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60kg	정재곤 (덕원고등학교)	이현 (인천체육고등학교)	김우성 (경민고등학교)
-66kg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김원준 (서울체육고등학교)	신태섭 (경민고등학교)
-73kg	전민성 (산철원고등학교)	신원우 (경민고등학교)	백재민 (우석고등학교)
-81kg	백준호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박재현 (도개고등학교)
-90kg	전민균 (산철원고등학교)	김성재 (금곡고등학교)	한재민 (남녕고등학교)

체급	1위	2위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100kg	김경민 (송도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채우찬 (충북체육고등학교)
+100kg	김영재 (영석고등학교)	김민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민준 (경민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48kg	유하늘 (영서고등학교)	김서영 (주산산업고등학교)	정아연 (서울체육고등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고등학교)	심은진 (도개고등학교)	서정안 (경남체육고등학교)
-57kg	문지현 (남녕고등학교)	이시현 (영서고등학교)	이채경 (서울체육고등학교)
-63kg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곽유주 (남성고등학교)	김비주 (금곡고등학교)
-70kg	이서현 (남녕고등학교)	이성아 (부산체육고등학교)	한울검 (철원여자고등학교)
-78kg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김하은 (광주체육고등학교)	차민영 (경민고등학교)
+78kg	정다정 (도개고등학교)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정지원 (경북체육고등학교)
남대부			
-60kg	오상우 (용인대학교)	이지환 (한국체육대학교)	박준용 (경주대학교)
-66kg	김찬욱 (용인대학교)	이명희 (용인대학교)	김도윤 (한국체육대학교)
-73kg	김래현 (한국체육대학교)	우영수 (경기대학교)	김기영 (용인대학교)
-81kg	김민수 (한국체육대학교)	장세창 (세한대학교)	김건우 (경주대학교)
-90kg	이재형 (용인대학교)	김세림 (용인대학교)	여용기 (영남대학교)
-100kg	최재민 (용인대학교)	임성민 (용인대학교)	이정재 (동덕대학교)
+100kg	백두산 (한국체육대학교)	남경수 (한국체육대학교)	김민준 (세한대학교)
여대부			
-48kg	진혜빈 (경기대학교)	이유진 (한국체육대학교)	양지현 (용인대학교)
-52kg	백지주 (한국체육대학교)	조은미 (국제대학교)	이소윤 (경기대학교)
-57kg	김성은 (한국체육대학교)	김민경 (한국체육대학교)	권솔기 (한국체육대학교)
-63kg	양지민 (용인대학교)	양지연 (용인대학교)	한서영 (용인대학교)
-70kg	강민지 (한국체육대학교)	최재영 (한국체육대학교)	강주은 (용인대학교)
-78kg	최혜민 (용인대학교)	김다윤 (용인대학교)	이승주 (용인대학교)
+78kg	김민영 (한국체육대학교)	정선아 (마산대학교)	최하은 (한국체육대학교)
남일반부			
-60kg	전승우 (인천광역시청)	이상민 (철원군청)	김대신 (KORAIL(코레일))
-66kg	김용승 (포항시청)	전승범 (포항시청)	이태호 (네이처팩토리)
-73kg	우정명 (한국마사회)	안재식 (대구광역시청)	이상근 (제주특별자치도청)
-81kg	고재경 (경남도청)	이다윤 (인천광역시청)	최훈 (영평군청)
-90kg	김문수 (네이처팩토리)	한상우 (부산군청)	윤한빈 (울산광역시유도회)
-100kg	송우영 (하이원유도)	이홍규 (KORAIL(코레일))	최민철 (제주특별자치도청)
+100kg	윤재구 (포항시청)	원준종 (철원군청)	김두용 (부산광역시청)
여일반부			
-48kg	이경아 (제주특별자치도청)	라희원 (고창군청)	박서윤 (고창군청)
-52kg	황수현 (광주교통공사)	이분 (제주특별자치도청)	한수연 (포항시청)
-57kg	정나리 (동해시청)	진솔비 (충북도청)	추홍선 (성동구청)
-63kg	이주연 (광주교통공사)	허솔미 (안산시청)	김유정 (성동구청)
-70kg	양지영 (동해시청)	박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김희주 (성동구청)
-78kg	윤현지 (철원군청)	김지영 (충북도청)	정승아 (경남도청)
+78kg	장유경 (충북도청)	임보영 (부산북구청)	김수민 (동해시청)

제17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2026. 4. 27.(월)~5. 2.(토) 충북, 청주올림픽국민생활관

체급	1위	2위	3위
12세이하부(남초부)			
-32kg	윤리원 (메이유도멀티짐)	이훈 (용인대국민유도관)	오주현 (탐동초등학교)
-36kg	하주현 (메이유도멀티짐)	권세준 (구원유도관)	유승원 (강령기유도관강동점)
-42kg	조윤은 (서울송중초등학교)	이예성 (가평중학교(가평스포츠센터))	김준수 (북상초등학교)
-48kg	하정후 (김해범유도관)	최민준 (도봉탐유도관)	김정후 (남양주국초등학교)
-54kg	최우현 (서울송중초등학교)	이로은 (김해범유도관)	김선율 (세종유도관(아름점))
-60kg	이지환 (부안초등학교)	정우솔 (내성초등학교)	박민호 (광명초등학교)
-66kg	정우주 (양학초등학교(가평스포츠센터))	김도은 (소룡초등학교)	박민찬 (탐유도관)
+66kg	홍현택 (양학초등학교(가평스포츠센터))	박수범 (청운유도관(연경점))	신진우 (논산시유도회)
-65kg	박범서 (여수탐클래스유도점)	김우성 (여수탐클래스유도점)	김우성 (여수탐클래스유도점)
+65kg	임시은 (강호유도관)	최준영 (강호유도관)	최준영 (강호유도관)
12세이하부(여초부)			
-32kg	이나윤 (안철용유도관)	손현지 (전주인후초등학교)	PIAO CAYING (삼수원초등학교)
-36kg	문서아 (서울송중초등학교)	이수빈 (도봉탐유도관)	백라희 (김해철천초등학교)
-40kg	김민준 (안철용유도관)	정재민 (세종유도관(보람점))	김채아 (천령유도관(천명점))
-44kg	백서진 (서울송중초등학교)	조수빈 (강령기유도관송파점)	신윤솔 (지오유도클럽)
-48kg	김예빈 (한라유도클럽)	신민하 (석수초등학교)	김솔 (대구태현초등학교)
-52kg	김효정 (대남초등학교)	장은승 (광명(미포)초등학교)	류보미 (미포초등학교)
-57kg	이시우 (삼양초등학교)	조효정 (남수원초등학교)	정다솔 (시천초등학교)
+57kg	심민주 (논산시유도회)	김시랑 (부여초등학교)	황현주 (미포초등학교)
15세이하부(남중부)			
-45kg	이동건 (신현중학교)	김태훈 (경민중학교)	김민혁 (경민중학교)
-48kg	윤준혁 (보성중학교)	홍승표 (경민중학교)	김민준 (G유도멀티점소하)
-51kg	박익성 (신현중학교)	강민구 (성산중학교)	김찬우 (천령유도관(하평점))
-55kg	최민수 (경민중학교)	정준오 (전북중학교)	조성현 (국가대표유도클럽)
-60kg	KIM YEOGR (김해범유도관)	김민준 (신현중학교)	윤종찬 (경민중학교)
-66kg	김서준 (보성중학교)	윤지호 (부평서중학교)	차민호 (대전대성중학교)
-73kg	고경서 (서울체육중학교)	곽일규 (보성중학교)	황서후 (신현중학교)
-81kg	이하솔 (보성중학교)	권시현 (순천신흥중학교)	김태현 (전북중학교)
-90kg	최윤범 (성남중학교)	방병연 (보성중학교)	노륜건 (부평서중학교)
+90kg	김재현 (홍천유도스포츠클럽)	황규태 (일산중학교)	육승우 (목포정호중학교)
15세이하부(여중부)			
-42kg	황하을 (신현여자중학교)	최가윤 (도개중학교)	권나연 (청주용암중학교)
-45kg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양아름 (애월중학교)	정효민 (플라이유도센터)
-48kg	조서연 (청주용암중학교)	장효인 (신현여자중학교)	변채현 (대구체육중학교)
-52kg	유소의 (서울체육중학교)	오배리(네이팰유도관(연아초등학교))	이보은 (무곡중학교)
-57kg	안유진 (경기체육중학교)	이보은 (부산체육중학교)	김진희 (서울체육중학교)
-63kg	박민주 (SKY유도관)	김민지 (아시아스포츠포)	이혜원 (안락중학교)
-70kg	양서영 (경민여자중학교)	이재민 (원강중학교)	정아인 (도개중학교)
+70kg	임수경 (금곡중학교)	이서은 (서울체육중학교)	한서진 (대전체육중학교)
18세이하부(남고부)			
-55kg	이기웅 (대성고등학교)	이한울 (영석고등학교)	나예성 (비봉고등학교)
-60kg	정재곤 (덕원고등학교)	조승우 (경민고등학교)	김재은 (부안광역시유도관)
-66kg	박현성 (도개고등학교)	박현성 (주산산업고등학교)	박태성 (대전체육고등학교)
-73kg	전민성 (산철원고등학교)	전진솔 (인천체육고등학교)	허아진 (서울체육고등학교)

체급	1위	2위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81kg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임태경 (대전체육고등학교)	박재현 (도개고등학교)
-90kg	전민석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이동규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문준서 (경민고등학교)
-100kg	김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	-
+100kg	이인용 (충남체육고등학교)	김영재 (영석고등학교)	임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48kg	손예원 (서울체육고등학교)	정아연 (서울체육고등학교)	박가은 (당진시유도회)
-52kg	박예진 (순천대학교고등학교)	최보은 (경북체육고등학교)	심은진 (도개고등학교)
-57kg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우주해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채경 (서울체육고등학교)
-63kg	이아은 (도개고등학교)	양태희 (도개고등학교)	문채현 (철원여자고등학교)
-70kg	이성아 (부산체육고등학교)	강지은 (남녕고등학교)	최연주 (충북체육고등학교)
-78kg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정수하 (부산체육고등학교)	이연아 (전북영암고등학교)
+78kg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오수아 (마포유도멀티점송파점)
남대부			
-60kg	하승우 (용인대학교)	안장혁 (마산대학교)	박준용 (청주대학교)
-66kg	윤현수 (한국체육대학교)	이승재 (동덕대학교)	여창기 (위대대학교)
-73kg	신우진 (한국체육대학교)	김기영 (용인대학교)	장준우 (용인대학교)
-81kg	박경은 (용인대학교)	김태후 (용인대학교)	강릉구 (용인대학교)
-90kg	김대명 (용인대학교)	도현진 (경기대학교)	김환 (강릉대학교)
-100kg	박재민 (용인대학교)	임성민 (용인대학교)	신민성 (용인대학교)
+100kg	백두산 (한국체육대학교)	장유민 (용인대학교)	백준우 (용인대학교)
여대부			
-48kg	진혜빈 (경기대학교)	주수림 (경기대학교)	오재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52kg	이다인 (한국체육대학교)	백지호 (한국체육대학교)	유솔기 (선문대학교)
-57kg	송나연 (경기대학교)	송가인 (경기대학교)	박지윤 (용인대학교)
-63kg	배채진 (한국체육대학교)	한서영 (용인대학교)	피지우 (한국체육대학교)
-70kg	모수민 (한국체육대학교)	강민지 (한국체육대학교)	배시은 (한국체육대학교)
-78kg	최혜민 (용인대학교)	최소윤 (세한대학교)	임가람 (한국체육대학교)
+78kg	김민영 (한국체육대학교)	정민서 (세한대학교)	김하영 (마산대학교)
남일반부			
-60kg	여동진 (여주시청)	최정빈 (부산광역시청)	이상민 (철원군청)
-66kg	류승환 (KORAIL(코레일))	전도원 (부산광역시청)	김용신 (포항시청)
-73kg	전신영 (부산군청)	홍문호 (용인시청)	김채환 (울산광역시유도회)
-81kg	박희원 (용인시청)	한재광 (부산광역시청)	김대성 (부산군청)
-90kg	이준성 (경남도청)	김유철 (용인시청)	조영학 (포항시청)
-100kg	정다빈 (영평군청)	송우영 (하이원유도)	김한수 (용인시청)
+100kg	윤재구 (포항시청)	황민호 (용인시청)	임혜원 (경남도청)
여일반부			
-48kg	유희정 (충북도청)	김민주 (안산시청)	류예원 (대전청성유도관)
-52kg	김근영 (성동구청)	라희원 (고창군청)	홍채림 (포항시청)
-57kg	이수빈 (부산북구청)	진솔비 (충북도청)	추홍선 (성동구청)
-63kg	이재란 (고창군청)	허솔미 (안산시청)	-
-70kg	유현지 (충북도청)	정혜민 (후배도유도)	-
-78kg	윤현지 (철원군청)	김아연 (고창군청)	고가영 (포항시청)
+78kg	장유경 (충북도청)	신지영 (순천시청)	정승아 (경남도청)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2세이하부(남초부)	사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의정부시체육회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12세이하부(여초부)	철원초등학교	산철원초등학교	영동아수초등학교
15세이하부(남중부)	보성중학교	동명중학교	신현중학교
15세이하부(여중부)	서울체육중학교	철원여자중학교	청주용암중학교
18세이하부(남고부)	경민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인천체육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광영여자고등학교
남대부	세한대학교	마산대학교	-
여대부	선문대학교	마산대학교	-
남일반부	부산군청	포항시청	한국마사회
여일반부	동해시청	고창군청	성동구청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부안초등학교	의정부시체육회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삼양초등학교
남자중학부	신현중학교	도개중학교	성남중학교
여자중학부	무곡중학교	서울체육중학교	용운중학교
남자고등부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여자고등부	인천체육고등학교	광영여자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교
남자대학부	청주대학교	영남대학교	김천대학교
여자대학부	경기대학교	-	-
남자일반부	포항시청	국군체육부대	네이처팩토리
여자일반부	충북도청	성동구청	부산북구청

2026 용인대학교총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유도대회

2026. 5. 13.(수)~16.(토)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체급	1위	2위	3위
15세이하부(남중부)			
-45kg	이의리 (온양중학교)	김현성 (부평서중학교)	이승리 (온양중학교)
-48kg	윤준혁 (보성중학교)	김도원 (연성중학교)	문주원 (경스유도클럽 본점)
-51kg	이규원 (보성중학교)	김주원 (도개중학교)	최진을 (동명중학교)
-55kg	이태민 (원강중학교)	이호성 (상성중학교)	진은우 (해동중학교)
-60kg	최원준 (보성중학교)	오준석 (송도중학교)	김도윤 (보성중학교)
-66kg	김동우 (서울체육중학교)	윤지호 (부평서중학교)	김서준 (보성중학교)
-73kg	고경서 (서울체육중학교)	방성혁 (보성중학교)	엄현욱 (사북중학교)
-81kg	이하율 (보성중학교)	이동건 (서울체육중학교)	BAWJARGAL JUNGBOOM (선명중학교)
-90kg	노윤건 (부평서중학교)	방병현 (보성중학교)	김영훈 (보성중학교)
+90kg	박지훈 (부평서중학교)	신지율 (도개중학교)	김재원 (충천유도스포츠클럽)
15세이하부(여중부)			
-42kg	김지형 (제주시중학교)	박혜빈 (배재여자중학교)	구나윤 (서울체육중학교)
-45kg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조은설 (사북중학교)	장효민 (물라이유도센터)
-48kg	이채연 (삼성중학교)	양다현 (배방유도관)	홍윤서 (후평중학교)
-52kg	유소의 (서울체육중학교)	지민서 (교성중학교)	배예민 (매이벌유도멀티짐 성북점)
-57kg	김진희 (서울체육중학교)	윤수미 (청주용암중학교)	정하늘 (연명유도관)
-63kg	배하윤 (광문중학교)	김혜리 (사북중학교)	이민지 (매이벌유도멀티짐본점)
-70kg	김라원 (산청여자중학교)	신채원 (국천서약)반스포츠클럽	이재연 (안성중학교)
+70kg	이서은 (서울체육중학교)	임수경 (금곡중학교)	차하늬 (선린중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5세이하부(남중부)	서울체육중학교	보성중학교	원광중학교
15세이하부(여중부)	서울체육중학교	아시아스포츠팀	산청여자중학교
18세이하부(남고부)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우석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도개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KATA 개인전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받기	잡기
메치기 본	안성철	윤건우	권가은
굴하기 본	조강해	신민준	이민기
되치기 본	함승원	이성재	이주찬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받기	잡기
부드러운 본	이다현	이서영	이성은
호신이 본	김동우	배서준	고현민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6. 5. 23.(토)~24.(일) 부산, 부경대학교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12세이하부(남초부)			
-35kg	차라울 (충북, 국가대표유도클럽)	김하준 (제주, 신재유도스쿨)	양응재 (충남, 탑동초등학교)
-43kg	이하람 (인천, 인천삼선초등학교)	허정후 (경기, 김재범유도관)	이예성 (부산, 개관대성초등학교)
-53kg	최우현 (서울, 서울송충초등학교)	김건우 (부산, 신금초등학교)	홍현준 (인천, 인천삼선초등학교)
-65kg	이승훈 (전북, 전진후초등학교)	김유중 (충북, 백운도클럽충주점)	최찬영 (강원, 부안초등학교)
+65kg	박수훈 (대구, 청춘유도관연경점)	김강민 (제주, 도형초등학교)	홍현백 (경, 영해중학교)
12세이하부(여초부)			
-36kg	문서아 (서울, 서울송충초등학교)	배수현 (강원, 철원초등학교)	김민영 (전북, 소릉초등학교)
-48kg	강예빈 (제주, 한라유도클럽)	김슬 (대구, 대구대원초등학교)	박별하 (경기, 매이벌유도멀티짐본점)
-57kg	김지우 (강원, 사북초등학교)	이시우 (충북, 삼양초등학교)	김예나 (제주, 동남초등학교)
+57kg	정예은 (경남, 도전초등학교)	한해솔 (제주, 신재유도스쿨)	한승이 (전남, 시전초등학교)
15세이하부(남중부)			
-52kg	장미리 (서울, 개웅중학교)	안형석 (경남, 창녕중학교)	이호성 (부산, 삼성중학교)
-58kg	김민준 (인천, 신현중학교)	우언재 (경북, 금호중학교)	김도윤 (서울, 보성중학교)

체급	1위	2위	3위
15세이하부(남중부)			
-66kg	김동우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이예성 (강원, 태장중학교)	이연수 (충남, 원강중학교)
-73kg	변은혁 (충남, 원당중학교)	구광모 (대전, 대전대성중학교)	김지용 (제주, 한라유도클럽)
-81kg	이동건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김태현 (전북, 전북중학교)	김시은 (제주, 물라이유도센터)
-90kg	장석진 (경기, 탑클래스유도)	임준형 (강원, 동명중학교)	이승현 (부산, 삼성중학교)
+90kg	김형주 (강원, 태장중학교)	황규태 (울산, 일산중학교)	석현민 (경남, 삼천포제일중학교)
15세이하부(여중부)			
-42kg	손민서 (충북, 옥천여자중학교)	황하율 (인천, 신현여자중학교)	안예은 (제주, 애월중학교)
-47kg	조서연 (충북, 청주용암중학교)	장효인 (인천, 신현여자중학교)	류예나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52kg	유소의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전하람 (충남, 청리중학교)	오예루 (매이벌유 (경기, 관매중학교)
-57kg	안유진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이보은 (부산, 부산체육중학교)	나예림 (인천, 송도R유도집)
-63kg	이혜연 (부산, 인덕중학교)	김다혜 (경남, 통영중앙중학교)	홍채아 (제주, 산성여자중학교)
-70kg	김나윤 (부산, 대전리중학교)	정아인 (경북, 도개중학교)	양서영 (경기, 경민여자중학교)
+70kg	정예림 (경남, 안민중학교)	정혜인 (울산, 울산스포츠중학교)	차하늬 (서울, 선린중학교)

제97회 YMCA전국유도대회

2026. 5. 28.(목)~30.(토)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체급	1위	2위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60kg	정준하 (경민고등학교)	조현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배성욱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66kg	김원준 (서울체육고등학교)	이현겸 (영구유도스포츠클럽)	강민구 (강릉유도스포츠클럽)
-73kg	전민성 (산철원고등학교)	정재윤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신원우 (경민고등학교)
-81kg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이지우 (남녕고등학교)	박기태 (우석고등학교)
-90kg	전민석 (울산병철고등학교)	이동규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전민균 (산철원고등학교)
-100kg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박근호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은찬 (금곡고등학교)
+100kg	박지훈 (목포고등학교)	김영재 (영석고등학교)	이한호 (함덕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48kg	임연 (남녕고등학교)	장인혜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혜민 (인천체육고등학교)
-52kg	유하늘 (영서고등학교)	백서영 (경기체육고등학교)	조서희 (주산산업고등학교)
-57kg	문지현 (남녕고등학교)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이시현 (영서고등학교)
-63kg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진희 (문왕별유도관)	ngentsgt munikhusen (연평중학교)
-70kg	정예은 (경북체육고등학교)	이서은 (경북체육고등학교)	배단비 (도개고등학교)
-78kg	이채민 (인천체육고등학교)	김하은 (광주체육고등학교)	황세희 (경민고등학교)
+78kg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아영 (광명여자고등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경민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경기체육고등학교	광명여자고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2026 명실상주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6. 6. 6.(토)~7.(일) 경북, 상주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유치부			
-20kg	김채리 (용인대범유도클럽)	김선빈 (협유도관)	강이준 (안철용유도관)
-25kg	이로운 (용인대계고유도관)	김부아 (탑클래스유도체육관)	이재우 (K1유도관)
12세이하부(남초부 1~2학년)			
-25kg	송유진 (서울송충초등학교)	이로운 (매이유도멀티짐)	권주원 (안철용유도관)
-30kg	어재원 (서울송충초등학교)	김선호 (상송유도회관)	이로운 (상송유도회관)
-35kg	조예준 (상송유도회관)	류형민 (안철용유도관)	김도훈 (쿠사리유도아카데미)
+35kg	김민균 (김천대원유도관)	윤민음 (철원유도관)	김민서 (샘마루유도스쿨)
12세이하부(남초부 3~4학년)			
-30kg	강유준 (안철용유도관)	윤주원 (매이유도멀티짐)	김은우 (서울송충초등학교)
-35kg	이주원 (영동초등학교)	최시아 (JNS유도체육관명백)	서지율 (안철용유도관)
-43kg	김건 (부안초등학교)	김태민 (김재범유도관)	엄태이 (부안초등학교)
-53kg	하창균 (구원유도관)	홍지호 (김재범유도관)	이태영 (매이벌유도멀티짐)
+53kg	박동혁 (부안초등학교)	최승연 (계령영서유도관)	이재율 (K1유도관)
12세이하부(남초부 5~6학년)			
-35kg	김지훈 (용현유도클럽남창점)	이기현 (용현유도클럽남창점)	조원준 (상주유도관)
-43kg	이규하 (안철용유도관)	김다인 (E2유도관호매실)	김태환 (형탄유도관)
-53kg	권민지 (청춘유도월성동)	황하록 (계령유도관)	이다원 (청춘유도관월아점)
-65kg	김유섭 (용현유도클럽남창점)	박상현 (용현유도클럽남창점)	허천진 (코리아팀유도멀티짐)
+65kg	이찬율 (청춘유도관연경점)	하지현 (합포한강체육관)	김동현 (용인대정관유도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12세이하부(여초부 1~3학년)			
-25kg	오하민 (세종유도관보람점)	권이서 (영동초등학교)	권연서 (영동초등학교)
-30kg	김채이 (용인대범유도클럽)	이사론 (철원유도관)	김지유 (경상유도아카데미)
-36kg	원아담 (샘마루유도스쿨)	김다인 (E2유도관성남)	반서진 (코리아팀유도멀티짐)
12세이하부(여초부 4~6학년)			
-30kg	권소이 (JNS유도체육관오신)	오하린 (세종유도관보람점)	유도희 (영당유도관)
-36kg	오민지 (김항기유도관송파점)	소유림 (권자름클럽유도관)	이나윤 (안철용유도관)
-48kg	임태윤 (올림픽유도관관저관)	김민솔 (안철용유도관)	전시아 (MJ유도관)
-57kg	조다연 (협용유도관)	손하율 (안산유도체육관)	김예림 (괴정한국유도관)
+63kg	장하윤 (매이벌유도멀티짐)	박채송 (BROS유도관)	김아란 (K1유도관)
15세이하부(남중부)			
-48kg	장세륜 (코리아팀유도멀티짐)	서준혁 (judopia이경근유도관)	최한결 (탑클래스유도체육관)
-52kg	김도원 (김재범유도관)	문주빈 (경스유도클럽 본점)	서준범 (광명유도멀티짐오신점)
-58kg	이태영 (천영유도관)	하정우 (오라차처우도 GYM)	이유찬 (용인대정관유도관)
-66kg	이승현 (우석유도체육관)	김시성 (홍성유도관)	김주한 (김재범유도관)
-73kg	조민수 (북곡김사부유도관)	명재진 (리더유도점)	양유담 (버들유도관)
-81kg	이재혁 (천영유도관)	주호연 (미스타시크강민수유도)	장민건 (산본유도관)
-90kg	김세명 (JNS유도체육관명백)	최은수 (SKY유도관)	황윤석 (리더유도점)
+90kg	최동현 (공명유도관전주점)	김예찬 (공명유도관)	문윤호 (미스타시크강민수유도점)

2026 명실상주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6. 6. 6.(토)~7.(일) 경북, 상주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15세이하부(여중부)			
-42kg	김가영 (봉내유도장)	정겨움 (E유도권(성남))	김호린 (울산상무유도관)
-47kg	유채운 (김제범유도관)	정다인 (리더유도장)	이나윤 (부산유상유도관)
-52kg	이하윤 (천명유도권(병점))	문사람 (대전한성유도관)	위아진 (웅인대김대유도관)
-57kg	배시윤 (상상유도관)	정은율 (병문유도관)	장지훈 (민앤미아노도현동)
-63kg	정은채 (E유도권(성남))	강다윤 (YK유도클럽)	고솔 (제이탑유도멀티점)
-70kg	임하영 (김영유도멀티점(오산점))	오현서 (탑클래스유도체육관)	우애진 (문스타유도장)
18세이하부(남고부)			
-55kg	하민수 (세종유도권(아름점))	진승준 (미스타스강수유도장)	정윤승 (Judopia이경군유도관)
-60kg	황찬 (세종유도권(아름점))	박준재 (독산유도권(KATA))	명민재 (천명유도권(화성))
-66kg	최무건 (웅인대투혼(아주점))	하윤호 (안산유도체육관)	김주원 (웅인대서대문체육관)
-73kg	박수연 (웅인대청룡유도관)	민세현 (Judopia이경군유도관)	박우빈 (라이노유도관)
-81kg	김두환 (양주고을유도체육관)	박태호 (서울미아체육관)	김주민 (김영유도멀티점(오산점))
-90kg	유경민 (웅인대투혼(아주점))	성세환 (김형기유도권(송파점))	강성훈 (안산유도체육관)
-100kg	박시후 (매이빌유도멀티점(보성))	나인호 (신사유도아카데미(서점))	김현수 (도화RUY유도GYM)
+100kg	나종현 (공평유도권(군산))	김도윤 (마포유도관)	박지후 (웅인대남양주유도관)
18세이하부(여고부)			
-48kg	홍은수 (JNS유도체육관(병점))	최서우 (김해유도관)	김나경 (Judopia이경군유도관)
-52kg	문가연 (천명유도권(화성점))	김진익 (JNS유도체육관(오산))	안예린 (문산유도관)
-57kg	이시은 (한강유도관)	오지현 (웅인대정진유도관)	김리하 (JNS유도체육관(병점))
-63kg	박채형 (천명유도권(화성))	정아림 (동탄유도체육관)	이해린 (E유도권(성남))
-70kg	임지현 (JNS유도체육관(오산))	제갈시후 (웅인대서대문체육관)	유은서 (제이탑유도멀티점(문점))
-78kg	구서현 (문스타유도장)	권태영 (영역유도관)	김태경 (웅인유도클럽(남창점))
+78kg	전지연 (분유도시흥배관)	최현지 (마포유도관)	김민지 (미르유도관)

체급	1위	2위	3위
청년부			
-60kg	송민기 (대학유도체육관)	권시현 (웅인대청룡유도관)	강재원 (미스타스김민수유도)
-66kg	박무용 (현림유도관)	유준민 (청춘유도관)	김요한 (권악유도체육관)
-73kg	김천오 (웅인대청룡유도관)	김영혁 (남해유도관)	강희망 (경문대학교)
-81kg	송현욱 (안산유도체육관)	박지홍 (서귀포유도관)	서대영 (현판유도권(대구))
-90kg	정진우 (프라임유도아카데미)	서준민 (M2M스포츠아카데미)	서영훈 (구원유도관)
-100kg	고예찬 (BROS유도관)	김도휘 (청춘유도권(다사점))	신재윤 (웅인대서대문체육관)
+100kg	이상철 (웅인대청룡유도관)	김형석 (탑웨일)	이민준 (웅인대청룡유도(보성))
중년부			
-60kg	남택준 (우석유도체육관)	김충길 (영양유도관)	-
-66kg	진동필 (세종유도권(보람점))	손경훈 (제일유도관)	김상윤 (국가대표(JO)유도)
-73kg	유재민 (천대유도아카데미)	오성석 (제일유도관)	전주연 (미스타스김민수유도)
-81kg	정우진 (부자유도관)	이종혁 (대전유도멀티점)	조철희 (매이빌유도멀티점(서문점))
-90kg	이상윤 (제일유도관)	설해범 (세종유도권(보람점))	이홍수 (문스타유도장)
-100kg	박태진 (원주스포츠클럽)	-	-
+100kg	강창민 (미스타스하노유도장)	염현선 (탑클래스유도체육관)	정완준 (공주유도관)
장년부			
-81kg	손승안 (목포상무유도관)	윤상훈 (공주유도관)	조상만 (M웅인대유도체육관(보성))
+90kg	유충조 (예산군유도회(오장))	우문수 (대전유도멀티점)	-
여일반부			
-48kg	박민경 (김형기유도권(송파점))	정송희 (대전유도관)	이하영 (천명유도관)
-52kg	이시윤 (청춘유도권(인천점))	김유민 (서부유도관)	김수빈 (력유도권(엑골점))
-57kg	홍민정 (서부유도관)	임예린 (한강유도관)	김은별 (경문대학교)
-63kg	유수진 (JNS유도멀티점)	정보민 (문스타유도장)	김민지 (경담유도관)
-70kg	조민경 (매이빌유도멀티점(성북점))	서은지 (신사유도클럽(송절점))	박예은 (한유도관)
-78kg	최선석 (신사유도클럽(송절점))	배송희 (사당유도관)	오세은 (태광유도관)
+78kg	이하영 (보로스유도권(강남대))	한예진 (신안대학교)	이승희 (공평유도권(익산))

제30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026. 6. 8.(월)~9.(화) 경북, 상주실내체육관

2026 아시아청소년 및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

체급	1위	2위	3위
남자부			
-60kg	윤주승 (웅인대학교)	조현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염형준 (경기대학교)
-66kg	이재준 (웅인대학교)	박현성 (도개고등학교)	이은를 (국민대학교)
-73kg	김용민 (웅인대학교)	허정재 (웅인대학교)	홍지민 (아주대학)
-81kg	심재윤 (주산산업고등학교)	김동진 (웅인대학교)	김태후 (웅인대학교)
-90kg	전민석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이범웅 (한국체육대학교)	차민호 (인하대학교)
-100kg	윤경일 (웅인대학교)	신민성 (웅인대학교)	이정재 (동덕대학교)
+100kg	백종우 (웅인대학교)	차봉 (마산대학교)	남기준 (경스우도클럽)

체급	1위	2위	3위
여자부			
-48kg	이유진 (한국체육대학교)	주수림 (경기대학교)	김예은 (웅인대학교)
-52kg	신유미 (웅인대학교)	백지호 (한국체육대학교)	유슬기 (선문대학교)
-57kg	문지현 (남녕고등학교)	박채경 (한국체육대학교)	강나은 (선문대학교)
-63kg	홍다은 (인천체육고등학교)	김지현 (재일고포)	조은미 (마산대학교)
-70kg	모수민 (한국체육대학교)	장혜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신주은 (웅인대학교)
-78kg	이재민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송주 (웅인대학교)	허가은 (동의과학대학교)
+78kg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정선아 (마산대학교)	최하은 (한국체육대학교)

제30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026. 6. 8.(월)~9.(화) 경북, 상주실내체육관

2026 세계KATA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발기	잡기	발기
메치기 본	빅준영	정지훈	안성철	윤건우	이민후	정현준
	에이스유도체육관		부산경호고등학교		우석대학교	
굳히기본	최승호	김태현	조강해	신민준	박민호	최민준
	웅인대경의유도관		명근유도관		광양유도관	
부드러운 본	이다현	이서영	김다연	윤정빈	우료민	우료아
	송탄유도관		이승원유도관		트리니티유도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발기	잡기	발기
호신의 본	이다현	이서영	이성은	서예은	김은혁	임채린
	송탄유도관		이승원유도관		명근유도관	
강도관 호신술	이다현	이서영	이성은	서예은	김은혁	임채린
	송탄유도관		이승원유도관		명근유도관	
호신의본	김동우	배서준	고현민	정지훈	-	
	이승원유도관		에이스유도체육관			

제5회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 2026. 6. 15.(월)~18.(목) 경기, 양평군체육센터

체급	1위	2위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55kg	이기용 (대성고등학교)	정호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박영훈 (한광고등학교)
-60kg	조현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조승우 (경민고등학교)	송세현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66kg	임정현 (경민고등학교)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이현겸 (양구유도스포츠클럽)
-73kg	김주혁 (경민고등학교)	허어진 (서울체육고등학교)	백승재 (보성고등학교)
-81kg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전민성 (산철원고등학교)	백준호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90kg	김준재 (목포고등학교)	문준서 (경민고등학교)	박경배 (주산산업고등학교)
-100kg	김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최준민 (비봉고등학교)	유현준 (대전체육고등학교)
+100kg	김상민 (대성고등학교)	김민준 (경민고등학교)	신지호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48kg	김서영 (주산산업고등학교)	정아연 (서울체육고등학교)	장유주 (보로스유도관)
-52kg	조서희 (주산산업고등학교)	이하연 (광영여자고등학교)	하보민 (광영여자고등학교)
-57kg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예서진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배단비 (경기체육고등학교)
-63kg	이재정 (서울체육고등학교)	김비주 (금곡고등학교)	이수연 (광영여자고등학교)
-70kg	정예설 (경북체육고등학교)	손민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김효은 (경북체육고등학교)
-78kg	차민정 (경민고등학교)	박지아 (경기체육고등학교)	이다솔 (진랑고등학교)
+78kg	정다정 (도개고등학교)	이재영 (전북민광자능고등학교)	정지연 (경북체육고등학교)
남대부			
-60kg	김한준 (경기대학교)	배수호 (선문대학교)	최진필 (선문대학교)
-66kg	이현승 (웅인대학교)	이명화 (웅인대학교)	김승훈 (웅인대학교)
-73kg	장준우 (웅인대학교)	임지민 (웅인대학교)	강성현 (웅인대학교)
-81kg	박경문 (웅인대학교)	김덕훈 (웅인대학교)	김은수 (웅인대학교)
-90kg	유도빈 (웅인대학교)	도현진 (경기대학교)	김문영 (한국체육대학교)
-100kg	박하민 (웅인대학교)	최재민 (웅인대학교)	백성민 (웅인대학교)
+100kg	장유민 (웅인대학교)	백종우 (웅인대학교)	김지용 (한국체육대학교)

체급	1위	2위	3위
여대부			
-48kg	유예슬 (한국체육대학교)	양지현 (웅인대학교)	-
-52kg	이다민 (한국체육대학교)	김예은 (웅인대학교)	조은미 (국제대학교)
-57kg	김성은 (한국체육대학교)	강나은 (선문대학교)	권슬기 (한국체육대학교)
-63kg	고은아 (웅인대학교)	송채영 (한국체육대학교)	김하연 (한국체육대학교)
-70kg	최재영 (한국체육대학교)	강재형 (웅인대학교)	신주은 (웅인대학교)
-78kg	박선영 (웅인대학교)	최소윤 (세한대학교)	변기빈 (웅인대학교)
+78kg	정선아 (마산대학교)	최하은 (한국체육대학교)	정민서 (세한대학교)
남자일반부			
-60kg	윤정빈 (양평군청)	최정웅 (양평군청)	여동건 (여수시청)
-66kg	전도원 (부산광역시청)	홍문호 (웅인시청)	장석진 (여수시청)
-73kg	배동현 (국군체육부대)	김민규 (국군체육부대)	강현철 (웅인시청)
-81kg	최훈 (양평군청)	박준현 (한국마사회)	박학원 (웅인시청)
-90kg	오가와성시 (재일고포)	이준성 (경남도청)	김성훈 (여수시청)
-100kg	정다빈 (양평군청)	이홍규 (KORAIL(코레일))	여예준 (부안군청)
+100kg	황민호 (웅인시청)	정진형 (여수시청)	박건우 (남양주시청)
여자일반부			
-48kg	김근영 (성동구청)	김민주 (안산시청)	박소미 (경남도청)
-52kg	한수연 (포항시청)	박서윤 (고창군청)	연서진 (서울특별시유도회)
-57kg	진솔비 (충북도청)	김현아 (고창군청)	황채림 (경북국가대표유도관)
-63kg	신채원 (순천시청)	김재경 (경남도청)	김유정 (성동구청)
-70kg	김은아 (인천광역시청)	김희주 (성동구청)	정혜민 (휴버트유도)
-78kg	김아현 (고창군청)	이윤선 (순천시청)	고기영 (포항시청)
+78kg	장유경 (충북도청)	신지영 (순천시청)	손정연 (부산북구청)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8세이하부(남고부)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비봉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18세이하부(여고부)	광영여자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남자대학부	세한대학교	마산대학교	여주대학
여자대학부	마산대학교	국제대학교	-
남자일반부	양평군청	포항시청	부산광역시청
여자일반부	고창군청	부산북구청	경남도청



	27623	박민호	46337	조선휘	46404	김현수	46471	최정재	156098	이유찬	156165	최건호	156232	이상협	156299	허주복	156366	이준서	156433	박세연	156500	이사랑	156567	강호현	493502	이시우	493569	박태윤	493636	이하경	493703	김하람	493770	이지웅	
10505	이흥덕	27624	최원균	46338	김유삼	46405	최남용	46472	김동규	156099	심혜정	156166	정규영	156233	차현우	156300	김시웅	156367	임정민	156434	황건동	156501	최현우	156568	김규민	493503	김초희	493570	이광현	493637	양희민	493704	김다혜	493771	조혜윤
10506	김건우	27625	박준섭	46339	남조연	46406	이승민	46473	권민재	156100	현민준	156167	이상현	156234	조성준	156301	이재윤	156368	유건호	156435	여진주	156502	이기성	156569	이윤주	493504	하성연	493571	이대건	493638	김서현	493705	이상화	493772	신유우
		27626	최은지	46340	이승열	46407	송태석	46474	이현규	156101	주서희	156168	김나운	156235	전우진	156302	이우준	156369	강명호	156436	안관우	156503	강성훈	156570	신태욱	493505	이보은	493572	신태석	493639	최예찬	493706	문소건	493773	정하연
	7단	27627	문광배	46341	김현성	46408	조영득	46475	신승민	156102	안형민	156169	양준호	156236	이가현	156303	강민준	156370	장유진	156437	엄용철	156504	윤원석	156571	서인우	493506	모범훈	493573	양이슬	493640	김민재	493707	박민준	493774	박지성
12051	차운성	27628	김세진	46342	김유진	46409	김명준	46476	이지민	156103	김우재	156170	최종민	156237	임재효	156304	김효준	156371	이건호	156438	전민규	156505	이진우	156572	김황석	493507	이상현	493574	조현우	493641	이은성	493708	김도훈	493775	신승재
12052	김영수	27629	안재준	46343	강현준	46410	정용범	46477	최민건	156104	이동규	156171	김인성	156238	이강현	156305	백민철	156372	이태양	156439	이시원	156506	안지훈	156573	김세원	493508	이동은	493575	김유찬	493642	이가희	493709	김태형	493776	성주환
12053	백경열	27630	이웅희	46344	염태현	46411	이종호	46478	권민석	156105	강현준	156172	조동희	156239	조다인	156306	우현경	156373	임형준	156440	배혜신	156507	임준한	156574	강유나	493509	최현우	493576	마유림	493643	정세빈	493710	오민준	493777	최민우
12054	이상현	27631	김용환	46345	신태희	46412	이주환	46479	김도연	156106	이사금	156173	정예진	156240	박진성	156307	이주원	156374	강동혁	156441	서영현	156508	김민재	156575	한우준	493510	김하영	493577	이민규	493644	이수빈	493711	배민아	493778	윤강록
12055	이명수	27632	최태혁	46346	정완준	46413	박상훈	46480	박지빈	156107	박성현	156174	박찬혁	156241	박세미	156308	김산	156375	신환경	156442	정다운	156509	이관연	156576	이승준	493511	김윤중	493578	송선율	493645	이지윤	493712	홍성혁	493779	장영준
12056	권성준	27633	한승근	46347	주성준	46414	이지희	46481	김예은	156108	박준수	156175	김민결	156242	장호찬	156309	김예지	156376	김민경	156443	오명준	156510	하보라	156577	서원영	493512	정학현	493579	김창호	493646	이동휘	493713	이봉현	493780	장병국
		27634	조상근	46348	안유준	46415	송나연	46482	이건우	156109	박지성	156176	김주영	156243	이은성	156310	허우창	156377	김하진	156444	류재웅	156511	김동우	156578	정병민	493513	유수현	493580	구세은	493647	임학천	493714	김은화	493781	정재우
		27635	이동원	46349	최원녕	46416	진해민	46483	전태산	156110	홍현진	156177	강민주	156244	유지민	156311	이범준	156378	신동민	156445	정민지	156512	조하진	156579	양예은	493514	서수연	493581	김현우	493648	김윤호	493715	송현우	493782	류승선
		27636	김병래	46350	김기훈	46417	이민석			156111	홍용준	156178	박예은	156245	최효은	156312	정재민	156379	추수진	156446	이승환	156513	김한별	156580	홍지영	493515	주우석	493582	조진호	493649	조영래	493716	배재현	493783	최주원
		27637	오현혁	46351	박영관	46418	이지연			156112	김민채	156179	조예인	156246	심재성	156313	연주흠	156380	남세기	156447	엄세희	156514	온지후	156581	가주혁	493516	이우빈	493583	유건우	493650	이윤찬	493717	성우진	493784	임형준
		27638	김태원	46352	오유라	46419	고영빈	156046	이민혁	156113	박서연	156180	임수빈	156247	김민의	156314	어현중	156381	윤세영	156448	조민재	156515	박성현	156582	배건우	493517	하유찬	493584	이훈구	493651	황윤성	493718	서수민	493785	신용호
		27639	진성희	46353	김태규	46420	황보상	156047	심준웅	156114	강지연	156181	강수찬	156248	안준범	156315	최우현	156382	김미르	156449	엄수영	156516	전근식	156583	최상우	493518	김동욱	493585	김종욱	493652	조성훈	493719	장효은	493786	문혜란
		27640	서보영	46354	박소윤	46421	김강인	156048	나솔찬	156115	정승연	156182	문석환	156249	김무현	156316	김태현	156383	임동혁	156450	유혜란	156517	윤선도			493519	이선재	493586	서가연	493653	조승원	493720	이재령	493787	문주현
		27641	강민정	46355	이유준	46422	이준영	156049	임지수	156116	박지율	156183	김기태	156250	서소망	156317	위강인	156384	강윤철	156451	최수연	156518	강은성		초단	493520	이동주	493587	김우성	493654	윤재경	493721	김상호	493788	장영우
		27642	박상진	46356	김기탁	46423	조주연	156050	송소원	156117	김시경	156184	송민섭	156251	김예준	156318	송영선	156385	김지수	156452	신진우	156519	유리원			493521	박재희	493588	박혁재	493655	안성현	493722	이재용	493789	김민정
		27643	박승미	46357	윤원상	46424	박채민	156051	박근태	156118	배동규	156185	유승아	156252	윤찬빈	156319	전재한	156386	김민수	156453	여의주	156520	천현승			493522	최한울	493589	하정민	493656	김규한	493723	김백호	493790	박지현
		27644	박원식	46358	최인혁	46425	임하진	156052	유영훈	156119	박찬웅	156186	최동욱	156253	전승호	156320	임정기	156387	지광호	156454	기아름	156521	송수성			493523	최한우	493590	김재윤	493657	김진일	493724	김성현	493791	한현재
		27645	강준혁	46359	김정민	46426	문민지	156053	이광준	156120	강진주	156187	신수하	156254	전창호	156321	나세윤	156388	유승욱	156455	백지혜	156522	강은찬			493524	이주성	493591	곽병욱	493658	김민지	493725	조용우	493792	서준원
		27646	김민성	46360	송호진	46427	권인준	156054	김성은	156121	김영석	156188	신은성	156255	석지원	156322	이동현	156389	이호준	156456	신서정	156523	박태영			493525	이지우	493592	김승현	493659	박정연	493726	정지원	493793	신재훈
		27647	김수빈	46361	김지민	46428	최준호	156055	김우진	156122	김민우	156189	오태호	156256	김건우	156323	김예은	156390	박세진	156457	임재하	156524	정재민			493526	김우인	493593	최현준	493660	윤선호	493727	도지훈	493794	백준화
		27648	김지영	46362	채진걸	464296																													



493837 김 영 진	493904 백 서 현	493971 정 성 근	494038 강 윤 재	494105 강 한 나	494172 이 지 울	494239 박 주 성	494306 최 은 솔	494373 천 우 영	494440 이 상 훈	494507 황 종 태	494574 이 승 아	494641 홍 성택	494708 정 한 별	소년2단	12201 정 유 석	12268 박 채 우	12335 손 정 우
493838 고 진 현	493905 황 성 준	493972 주 성 현	494039 이 원 준	494106 박 주 언	494173 이 하 울	494240 최 재 혁	494307 유 영 규	494374 이 준 영	494441 손 승 호	494508 김 강 민	494575 양 준 서	494642 민 준 영	494709 이 은 흘	12135 장 일 찬	12202 심 하 준	12269 박 신 우	12336 한 별
493839 김 문 찬	493906 이 승 민	493973 정 지 민	494040 김 한 나	494107 정 성 욱	494174 권 정 주	494241 이 정 섭	494308 윤 정 원	494375 안 성 운	494442 최 민 준	494509 김 종 현	494576 박 승 현	494643 안 병 욱	494710 부 서 윤	12136 이 민 지	12203 이 민 준	12270 이 윤 성	12337 정 유 찬
493840 권 은 호	493907 유 승 민	493974 이 찬 솔	494041 신 용 선	494108 홍 주 준	494175 심 인 우	494242 박 진 성	494309 조 아 영	494376 이 동 우	494443 이 선 우	494510 표 지 호	494577 박 정 훈	494644 이 서 울	494711 김 소 훈	12137 김 현 서	12204 이 호 연	12271 김 시 울	12338 배 한 승
493841 조 솔 민	493908 김 동 욱	493975 정 경 호	494042 김 덕 욱	494109 양 한 결	494176 이 주 은	494243 김 아 진	494310 이 수 경	494377 윤 환	494444 임 찬 욱	494511 강 무 한	494578 김 선 업	494645 구 보 경	494712 채 종 훈	12138 황 유 진	12205 백 도 훈	12272 김 나 울	12339 박 재 영
493842 배 성 준	493909 나 영 윤	493976 안 성 준	494043 장 연 지	494110 표 형 진	494177 임 채 이	494244 주 연 준	494311 박 시 윤	494378 전 우 현	494445 이 시 은	494512 김 태 연	494579 노 은 지	494646 장 예 서	494713 김 태 양	12139 홍 리 우	12206 박 채 호	12273 조 소 연	12340 임 준 성
493843 박 우 솔	493910 이 형 도	493977 김 도 형	494044 이 현 준	494111 이 아 름	494178 김 효 현	494245 이 용 민	494312 이 지 호	494379 정 상 현	494446 배 은 유	494513 조 수 환	494580 최 하 람	494647 김 연 희	494714 김 현 강	12140 정 윤 우	12207 장 훈 태	12274 오 도 현	12341 신 우 진
493844 윤 승 현	493911 김 다 혜	493978 박 호 준	494045 장 연 화	494112 이 서 준	494179 한 지 우	494246 김 태 희	494313 김 민 재	494380 양 정 원	494447 조 건 우	494514 이 도 영	494581 장 희 우	494648 이 지 민	494715 고 지 혁	12141 박 성 빈	12208 김 서 빈	12275 신 정 민	12342 고 민 성
493845 김 도 빈	493912 임 여 름	493979 김 민 혁	494046 권 효 정	494113 이 윤 서	494180 이 민 섭	494247 김 동 현	494314 최 원 석	494381 박 찬 윤	494448 안 재 희	494515 최 우 영	494582 이 건 희	494649 김 다 연	494716 최 민 서	12142 김 도 은	12209 김 서 준	12276 이 수 혁	12343 이 현 정
493846 이 소 의	493913 송 민 경	493980 김 규 호	494047 권 민 조	494114 정 찬	494181 정 영 찬	494248 백 승 찬	494315 정 윤 하	494382 유 은 재	494449 심 태 현	494516 여 현 서	494583 이 건 우	494650 박 윤 주	494717 전 찬	12143 김 지 현	12210 이 형 준	12277 김 기 주	12344 최 동 현
493847 김 지 환	493914 황 재 원	493981 이 제 경	494048 조 형 준	494115 조 준 희	494182 신 세 훈	494249 장 영 서	494316 김 태 우	494383 서 성 현	494450 박 승 호	494517 강 주 아	494584 정택진	494651 유 동 훈	494718 김 동 욱	12144 박 사 랑	12211 이 윤 호	12278 김 영 진	12345 한 승 현
493848 이 예 성	493915 황 시 준	493982 신 재 호	494049 정 우 석	494116 하 늘	494183 안 재 윤	494250 조 경 한	494317 김 민 준	494384 한 지 우	494451 엄 진 국	494518 김 도 현	494585 정 현	494652 광 두 연	494719 김 건 우	12145 변 지 웅	12212 김 성 준	12279 김 희 재	12346 박 태 혁
493849 이 민 형	493916 문 수 희	493983 이 상 준	494050 정 병 근	494117 최 현 준	494184 서 지 민	494251 이 동 초	494318 배 기 범	494385 김 단 아	494452 김 민 재	494519 김 두 용	494586 박 태 양	494653 조 영 목	494720 고 하 울	12146 이 정 기	12213 정 다 인	12280 박 건 하	12347 태 준 영
493850 강 의 정	493917 박 정 희	493984 김 주 경	494051 김 유 겸	494118 김 현 식	494185 강 리 윤	494252 박 제 이	494319 진 기 영	494386 박 규 현	494453 김 민 석	494520 김 진 영	494587 최 현 민	494654 최 준 혁	494721 양 세 진	12147 양 성 호	12214 송 준 영	12281 송 이 재	12348 천 시 우
493851 송 영 웅	493918 엄 정 인	493985 엄 영 지	494052 백 종 호	494119 정 찬 유	494186 최 태 영	494253 이 석 형	494320 김 호 영	494387 김 푸 름	494454 임 종 호	494521 최 윤 서	494588 권 민 재	494655 배 세 진	494722 가 민 석	12148 배 소 리	12215 이 요 한	12282 한 성 규	12349 변 하 울
493852 문 민 수	493919 이 승 화	493986 홍 이 음	494053 황 승 오	494120 이 서 준	494187 이 상 윤	494254 권 용 민	494321 김 민 웅	494388 정 다 빈	494455 김 윤 지	494522 설 우 진	494589 김 연 아	494656 박 지 호	494723 권 경 탁	12149 전 민 완	12216 박 시 원	12283 조 용 찬	12350 변 하 림
493853 최 윤 제	493920 김 다 영	493987 김 태 균	494054 이 채 영	494121 김 도 은	494188 양 도 경	494255 서 준 경	494322 강 다 훈	494389 오 유 정	494456 이 우 진	494523 광 은 철	494590 안 훈 민	494657 송 지 후	494724 박 은 혁	12150 최 연 준	12217 신 현 재	12284 윤 민 근	12351 한 총 만
493854 유 찬 빈	493921 김 다 민	493988 정 장 인	494055 김 규 빈	494122 김 우 경	494189 양 태 관	494256 박 시 은	494323 정 은 찬	494390 손 수 진	494457 이 현 빈	494524 김 혜 은	494591 김 남 은	494658 김 현 서	494725 나 윤 초	12151 장 동 호	12218 박 현 수	12285 안 윤 재	12352 정 유 한
493855 박 주 훈	493922 조 병 재	493989 정 경 곤	494056 장 림 준	494123 신 수 현	494190 김 의 준	494257 김 지 훈	494324 이 시 연	494391 문 다 인	494458 박 민 서	494525 주 현 겸	494592 김 은 비	494659 김 신 우	494726 윤 서 준	12152 김 도 윤	12219 김 하 윤	12286 고 정 규	12353 정 건
493856 나 호 연	493923 허 규 상	493990 반 소 현	494057 장 은 영	494124 조 승 범	494191 전 병 욱	494258 박 서 연	494325 조 현 진	494392 안 인 영	494459 이 태 윤	494526 서 정 민	494593 문 예 솔	494660 김 대 영	494727 조 은 성	12153 김 동 건	12220 진 승 현	12287 김 도 원	12354 김 진 혁
493857 양 희 원	493924 임 태 린	493991 한 춘 우	494058 김 은 채	494125 안 효 찬	494192 백 시 은	494259 허 지 원	494326 나 형 준	494393 김 유 준	494460 박 지 환	494527 김 규 리	494594 김 예 준	494661 이 창 희	494728 강 나 윤	12154 강 주 안	12221 윤 정 후	12288 김 주 한	12355 조 호 선
493858 김 종 현	493925 김 광 현	493992 이 종 우	494059 송 성 현	494126 도 원 우	494193 김 예 린	494260 이 현 석	494327 최 도 이	494394 성 현 욱	494461 최 형 준	494528 김 보 민	494595 배 다 은	494662 김 도 영	494729 김 가 원	12155 전 승 현	12222 최 진 우	12289 김 지 원	12356 이 울
493859 정 윤 아	493926 정 채 은	493993 주 준 호	494060 이 도 훈	494127 이 현 서	494194 김 아 윤	494261 밀란체 킬라몬	494328 이 승 민	494395 유 도 현	494462 이 건 욱	494529 박 종 혁	494596 신 민 찬	494663 임 도 현	494730 김 지 윤	12156 김 시 우	12223 박 준 영	12290 최 소 울	12357 배 선 우
493860 김 정 원	493927 백 정 수	493994 김 대 현	494061 이 이 빈	494128 정 지 연	494195 정 소 울	494262 이 예 주	494329 유 제 현	494396 강 민 혁	494463 박 채 린	494530 권 구 현	494597 조 유 성	494664 박 범 준	494731 김 민 솔	12157 나 유 찬	12224 이 강 우	12291 임 희 성	12358 조 정 민
493861 권 유 준	493928 한 태 현	493995 이 수 호	494062 우 상 혁	494129 김 우 찬	494196 김 유 빈	494263 이 지 현	494330 차 영 훈	494397 김 규 연	494464 정 시 현	494531 이 승 용	494598 서 동 휘	494665 조 동 빈	494732 정 승 재	12158 나 은 찬	12225 전 유 찬	12292 단 경 민	12359 서 원 영
493862 김 준 영	493929 한 건 희	493996 류 시 현	494063 강 정 우	494130 신 이 준	494197 김 그 린	494264 손 민 경	494331 신 문 정	494398 이 제 나	494465 송 민 건	494532 신 소 한	494599 허 석 경	494666 김 민 제	494733 고 승 연	12159 추 지 훈	12226 김 태 강	12293 김 태 린	12360 박 서 윤
493863 이 하 람	493930 장 형 훈	493997 신 민 경	494064 김 서 준	494131 홍 석 호	494198 서 민 준	494265 최 강	494332 유 가 화	494399 이 세 서	494466 최 우 석	494533 김 하 은	494600 최 수 혁	494667 김 지 현	494734 이 명 찬	12160 박 승 조	12227 배 기 섭	12294 양 우 신	12361 박 규 원
493864 최 준 혁	493931 류 호 성	493998 이 예 경	494065 박 종 담	494132 김 도 현	494199 천 지 훈	494266 채 동 훈	494333 오 지 유	494400 김 우 원	494467 김 지 은	494534 박 다 름	494601 김 세 룡	494668 박 민 수	494735 조 은 빈	12161 정 예 나	12228 김 서 진	12295 윤 우 현	12362 이 은 혜
493865 김 영 무	493932 김 하 나	493999 이 명 기	494066 이 호 준	494133 장 석 현	494200 전 재 훈	494267 이 지 우	494334 조 유 상	494401 김 동 주	494468 용 석 현	494535 엄 서 연	494602 심 현 도	494669 현 시 은	494736 조 하 준	12162 이 세 아	12229 서 지 석	12296 최 주 원	12363 임 라 은
493866 박 현 석	493933 주 해 영	494000 박 찬 웅	494067 홍 승 관	494134 김 재 규	494201 최 대 한	494268 윤 솔 기	494335 박 소 윤	494402 윤 하 연	494469 강 승 기	494536 김 건 우	494603 김 슬 비	494670 정 해 영	494737 이 현 성	12163 이 진 겸	12230 김 다 겸	12297 김 민 찬	12364 홍 준 우
493867 진 주 석	493934 유 현 서	494001 전 재 현	494068 안 연 기	494135 정 상 하	494202 전 상 하	494269 김 해 미	494336 박 호 은	494403 민 소 담	494470 장 시 우	494537 권 우 림	494604 한 영 준	494671 최 석 호	494738 이 채 현	12164 최 유 성	12231 서 현 주	12298 윤 여 준	12365 김 지 수
493868 신 아 단	493935 김 유 현	494002 신 강 림	494069 김 동 하	494136 신 준 수	494203 김 민 준	494270 김 준 기	494337 정 영 서	494404 정 진 우	494471 박 지 민	494538 이 주 현	494605 엄 해 성	494672 이 하 랑	494739 장 해 인	12165 정 현 수	12232 정 윤 재	12299 이 예 준	12366 정 아 윤
493869 박 하 민	493936 김 유 빈	494003 박 서 현	494070 김 현 우	494137 박 성 호	494204 하 서 윤	494271 김 서 연	494338 은 도 현	494405 양 세 원	494472 최 재 민	494539 안 지 민	494606 전 준 영	494673 김 민 진	494740 김 민 솔	12166 김 균 하	12233 안 효 린	12300 김 주 환	12367 최 용 준
493870 김 여 은	493937 이 동 현	494004 정 서 현	494071 이 유 진	494138 윤 미 림	494205 채 성 환	494272 권 연 서	494339 장 지 영	494406 김 지 훈	494473 이 대 한	494540 김다니엘	494607 신 정 용	494674 옥 해 빈	494741 서 민 주	12167 이 성 찬	12234 전 지 오	12301 최 서 은	12368 박 채 원
493871 김 서 연	493938 심 효 정	494005 김 예 준	494072 오 지 훈	494139 김 민 지	494206 김 명 찬	494273 조 하 현	494340 진 현 서	494407 차 은 채	494474 김 연 우	494541 김 다 윳	494608 추 우 진	494675 이 도 경	494742 배 민 교	12168 조 예 준	12235 조 해 운	12302 황 성 아	12369 최 동 준
493872 이 유 석	493939 박 정 민	494006 강 미 주	494073 유 시 준	494140 김 수 민	494207 엄 현 선	494274 홍 유 리	494341 이 현 재	494408 엄 지 원	494475 황 주 연	494542 이 준 희	494609 송 윤 재	494676 김 수 현	494743 김 채 윤	12169 노 주 희	12236 조 해 운	12303 서 명 현	12370 안 태 건
493873 노 경 민	493940 최 현 빈	494007 고 진 도	494074 조 선 우	494141 한 은 주	494208 박 상 훈	494275 이 준 수	494342 신 가 은	494409 박 성 준	494476 김 기 원	494543 김 정 아	494610 김 동 우	494677 남 주 은	494744 민 지 윤	12170 강 지 우	12237 강 동 진	12304 서 효 준	12371 하 승 연
493874 차 용 현	493941 박 성 준	494008 김 범 준	494075 양 세 현	494142 정 승 연	494209 오 지 훈	494276 이 승 리	494343 최 지 유	494410 최에드워드	494477 김 유 화	494544 고 승 연	494611 도 은 지	494678 이 성 빈		12171 김 건 하	12238 고 건 하	12305 손 채 빈	12372 하 정 원
493875 최 준 혁	493942 이 창 성	494009 김 세 중	494076 최 보 경	494143 나 경 일	494210 나 동 혁	494277 안 주 영	494344 박 하 은	494411 김 현 진	494478 김 지 환	494545 강 우 혁	494612 김민준혁	494679 송 정 빈		12172 이 지 안	12239 백 지 훈	12306 박 수 현	12373 이 세 혁
493876 박 태 은	493943 이 승 우	494010 김 시 연	494077 한 지 울	494144 전 예 솔	494211 전 지 훈	494278 이 윤 후	494345 이 채 원	494412 김 승 현	494479 정 현 욱	494546 심 재 현	494613 김 민 준	494680 박 세 호	1553 김 민 근	12173 유 윤 아	12240 권 혁택	12307 박 수 호	12374 정 예 준
493877 김 은 솔	493944 나 도 윤	494011 김 우 협	494078 이 태 준	494145 이 승 준	494212 이 승 민	494279 이 채 훈	494346 최 유 빈	494413 강 규 현	494480 김 지 유	494547 오 도 현	494614 박 민 준	494681 손 정 아	1554 박 세 린	12174 정 은 우	12241 서 로 예	12308 이 건 희	12375 황 준 수
493878 조 현 우	493945 김 도 윤	494012 김 찬 우	494079 이 수 찬	494146 채 희 혁	494213 이 영 민	494280 김 승 준	494347 김 세 불	494414 전 채 은	494481 김 채 린	494548 정 민 성	494615 정 민 제	494682 이 권 념	1555 이 인 훈	12175 김 서 준	12242 윤 태 경	12309 권 도 윤	12376 이 지 윤
493879 강 나 연	493946 허 재 석	494013 김 한 별	494080 김 찬 영	494147 최 재 석	494214 오 승 준	494281 전 우 현	494348 이 준 혁	494415 이 동 현	494482 김 하 은	494549 오 승 우	494616 이 원 섭	494683 박 은 혜	1556 강 하 람	12176 박 준 서	12243 이 시 원	12310 박 승 운	12377 이 연 서
493880 박 하 랑	493947 김 승 아	494014 김 호 성	494081 김 상 진	494148 공 규 식	494215 박 상 철	494282 김 래 현	494349 이 예 준	494416 최 동 욱	494483 노 남 영	494550 서 대 원	494617 천 승 환	494684 유 태 중	1557 박 홍 준	12177 최 예 준	12244 최 현 우	12311 심 대 승	12378 이 정 진
493881 이 현 승	493948 이 호 진	494015 목 지 훈	494082 김 서 준	494149 김 재 환	494216 오 수 민	494283 김 하 영	494350 이 연 수	494417 이 강 준	494484 성 하 근	494551 최 고 은	494618 남택수	494685 이 한 름	1558 박 환	12178 김 도 윤	12245 박 건 우	12312 정 기 울	12379 최 서 준
493882 박 경 민	493949 임 승 혁	494016 박 소 영	494083 신 효 수	494150 신 재 국	494217 김 정 민	494284 정 승 민	494351 양 서 희	494418 최 도 렬	494485 서 민 준	494552 손 민 재	494619 조 만 호	494686 전 도 은	1559 허 광 호	12179 박 라 은	12246 이 겸	12313 박 가 빈	12380 최 휘 호
493883 배 채 윤	493950 김 정 안	494017 박 상 현	494084 김 루 은	494151 박 기 태	494218 김 한 서	494285 김 현 철	494352 김 나 연	494419 안 찬 욱	494486 이 선 군	494553 고 성 준	494620 박 준	494687 안 채 윤	1560 정 윤 재	12180 한 태 울	12247 조 주 원	12314 박 가 람	12381 김 명 준
493884 석 지 효	493951 김 진 성	494018 박 정 환	494085 성 호 준	494152 정 수 원	494219 우 창 훈	494286 안 태 영	494353 이 현 지	494420 김 의	494487 배 주 민	494554 김 도 현	494621 이 건 현	494688 신 광 희	1561 김 지 훈	12181 진 승 재	12248 이 상 우	12315 이 강 인	12382 김 도 희
493885 이 윤 화	493																



63085	서무영	63151	정예건	63217	도하준	63283	최윤희	63349	강도우	63415	장제우	63481	양지유	63547	김하민	63613	정운재	63679	김태영	63745	김대한	63811	조정안	63877	최빛나	63943	김산	64009	김준	64075	최영훈	64141	강민	64207	최이현
63086	양태웅	63152	박승언	63218	문지환	63284	박희원	63350	배정우	63416	최민음	63482	장건우	63548	박주인	63614	강재희	63680	김동훈	63746	김연준	63812	정로이	63878	우진서	63944	박승민	64010	김산	64076	백연우	64142	손수정	64208	권태현
63087	이준희	63153	정찬준	63219	권이수	63285	송우진	63351	김태준	63417	김지오	63483	김서울	63549	김지후	63615	최서준	63681	박유찬	63747	윤서현	63813	방예은	63879	김도현	63945	오기탁	64011	박준성	64077	김은중	64143	김다인	64209	이준혁
63088	조경모	63154	이승재	63220	박성휘	63286	송윤호	63352	김소희	63418	이지모	63484	이채원	63550	김동현	63616	이유아	63682	임단	63748	최민찬	63814	양민준	63880	문지후	63946	임영민	64012	이마루	64078	김민호	64144	이효성	64210	임지윤
63089	서시하	63155	김여준	63221	정성일	63287	김채민	63353	위정안	63419	신유준	63485	추석현	63551	이서우	63617	이동훈	63683	강알엘	63749	권수영	63815	배수현	63881	황지윤	63947	조승민	64013	최승범	64079	곽예찬	64145	백라희	64211	류연준
63090	이윤호	63156	최준원	63222	배정현	63288	손유건	63354	김민준	63420	김시원	63486	문세환	63552	서주원	63618	나서연	63684	강윤	63750	이유승	63816	박성우	63882	임태민	63948	정재은	64014	김평서	64080	이지훈	64146	문해울	64212	이서아
63091	박동준	63157	이준수	63223	유승하	63289	이준서	63355	나세연	63421	윤규현	63487	박민준	63553	김민성	63619	서수진	63685	김민성	63751	채수범	63817	박효빈	63883	한승민	63949	조은서	64015	나민준	64081	김문찬	64147	배재은	64213	이강민
63092	지선우	63158	정혜솔	63224	박견우	63290	조민준	63356	신우진	63422	김태현	63488	오지후	63554	정의로	63620	이서우	63686	박해림	63752	박강민	63818	김도윤	63884	최예찬	63950	김윤우	64016	김엘린	64082	김무겸	64148	김건령	64214	고요한
63093	송아인	63159	김재민	63225	김승윤	63291	정혜인	63357	이주원	63423	오민준	63489	김도윤	63555	이상욱	63621	박진우	63687	배은호	63753	박예준	63819	강민욱	63885	이준성	63951	주지훈	64017	김아셀	64083	김보겸	64149	김가현	64215	강한민
63094	이은우	63160	윤승찬	63226	김유현	63292	우시은	63358	박유완	63424	정시원	63490	이우찬	63556	방초원	63622	전우성	63688	정민준	63754	최량	63820	최예원	63886	김도윤	63952	서진우	64018	전효주	64084	김승원	64150	권시은	64216	김시은
63095	김도윤	63161	김다미	63227	김도윤	63293	이승우	63359	주민혁	63425	조정현	63491	권도운	63557	정시울	63623	서준	63689	안건후	63755	김서아	63821	방진영	63887	안세연	63953	김경준	64019	이서희	64085	홍다원	64151	이도윤	64217	부서은
63096	정효원	63162	김지성	63228	윤서빈	63294	허대윤	63360	홍수현	63426	정은유	63492	허윤서	63558	임준이	63624	정제임	63690	이호민	63756	김윤우	63822	최동민	63888	박정연	63954	강하윤	64020	허범	64086	안종율	64152	박예찬	64218	강은율
63097	안준원	63163	나상훈	63229	전수민	63295	박지후	63361	김민승	63427	김담	63493	김민규	63559	엄찬웅	63625	현정우	63691	이원서	63757	임수현	63823	김주준	63889	강담희	63955	김재원	64021	강해찬	64087	권지원	64153	금산	64219	문채원
63098	임서진	63164	최건희	63230	정서영	63296	김민성	63362	나로미	63428	최예준	63494	우지호	63560	정시윤	63626	최은유	63692	박시완	63758	민재홍	63824	김은준	63890	유대현	63956	이시현	64022	김찬후	64088	박성호	64154	추서준	64220	이준
63099	김은혜	63165	최유안	63231	김승우	63297	유주형	63363	이효민	63429	김도현	63495	이윤찬	63561	엄진욱	63627	김세훈	63693	이정연	63759	유하준	63825	반서준	63891	전유겸	63957	이준재	64023	김호윤	64089	아니스	64155	강형하	64221	김예준
63100	이용재	63166	이채원	63232	이승정	63298	김예성	63364	윤혜원	63430	박지환	63496	이시우	63562	류수아	63628	최도경	63694	유혜민	63760	김규민	63826	장라희	63892	이하엘	63958	문준서	64024	최한결	64090	심유찬	64156	권도윤	64222	송승엽
63101	구서영	63167	이범	63233	오하랑	63299	조강재	63365	윤승혁	63431	이승준	63497	이명훈	63563	하원교	63629	윤승기	63695	이건호	63761	연태윤	63827	이준민	63893	손법석	63959	황유민	64025	이지한	64091	박은우	64157	독고민지	64223	오유준
63102	구고승	63168	박주빈	63234	오하린	63300	남희재	63366	김가현	63432	조이한	63498	박세희	63564	김우현	63630	조은호	63696	임주혁	63762	허다예	63828	최민준	63894	김예준	63960	김귀주	64026	강현성	64092	신지호	64158	송명현	64224	현주현
63103	이정우	63169	김민후	63235	최유준	63301	박지후	63367	김호서	63433	구교빈	63499	고재우	63565	김건하	63631	추장우	63697	정시환	63763	박시완	63829	강예민	63895	김하진	63961	문성현	64027	문승준	64093	최정우	64159	김석영	64225	방건호
63104	이채원	63170	정민재	63236	김도현	63302	정예준	63368	김은솔	63434	이준호	63500	전시현	63566	김예준	63632	최민규	63698	한유준	63764	권예지	63830	정재욱	63896	조예준	63962	오예림	64028	최하울	64094	김도진	64160	이준혁	64226	박혜성
63105	권소율	63171	육은호	63237	유리호	63303	연지욱	63369	박한울	63435	전형표	63501	한정민	63567	이수찬	63633	유지훈	63699	이다은	63765	권태주	63831	김도윤	63897	김선호	63963	임하울	64029	홍지수	64095	이대한	64161	권지훈	64227	강유준
63106	이인규	63172	김용석	63238	김백찬	63304	김채우	63370	이은수	63436	김건희	63502	이지우	63568	김태양	63634	조성운	63700	송시경	63766	이도현	63832	허준	63898	이로운	63964	박주원	64030	오지안	64096	목은수	64162	최지환	64228	강나현
63107	남윤우	63173	염유준	63239	김강민	63305	임상현	63371	심윤보	63437	이하윤	63503	권윤성	63569	김종하	63635	송지은	63701	이시윤	63767	이도율	63833	김유빈	63899	최민우	63965	서예원	64031	박철오	64097	김서원	64163	정원호	64229	김태원
63108	최시우	63174	박진현	63240	김승찬	63306	마준혁	63372	김도혜	63438	조하준	63504	임지완	63570	이병건	63636	노준수	63702	시울	63768	이가은	63834	윤승진	63900	한윤찬	63966	전은기	64032	정민선	64098	김서원	64164	배성민	64230	김연서
63109	최원민	63175	이도현	63241	황대겸	63307	마준우	63373	형준서	63439	김태양	63505	정한규	63571	이태건	63637	노준호	63703	윤주희	63769	최시우	63835	김율안	63901	이민서	63967	최시우	64033	김태환	64099	김민찬	64165	김태연	64231	박준석
63110	최원형	63176	장준혁	63242	윤은휘	63308	박한별	63374	김성우	63440	박주원	63506	하루	63572	김하란	63638	이원	63704	유한울	63770	박찬우	63836	임지율	63902	최량	63968	정수현	64034	차가람	64100	문하윤	64166	장소연	64232	김현후
63111	김미나	63177	최재익	63243	김의진	63309	이재웅	63375	김도현	63441	오우진	63507	최석민	63573	송민규	63639	이건	63705	유한승	63771	고율하	63837	이성민	63903	조주완	63969	정하윤	64035	박명재	64101	김태환	64167	오채민	64233	최윤준
63112	정태성	63178	우주강산	63244	박건울	63310	이예솔	63376	서준우	63442	정윤지	63508	문주원	63574	윤희성	63640	안준혁	63706	김시환	63772	김태율	63838	김예안	63904	초은재	63970	김다예	64036	정태건	64102	심채욱	64168	박지민	64234	강서우
63113	안정호	63179	송윤우	63245	장서현	63311	홍지성	63377	한예솔	63443	오욱진	63509	한지은	63575	최유준	63641	박주형	63707	이서우	63773	금윤우	63839	양우빈	63905	김민준	63971	반민희	64037	김민석	64103	정유찬	64169	이재울	64235	현동욱
63114	임현서	63180	양승윤	63246	홍찬휘	63312	이수인	63378	박소율	63444	최서현	63510	김승현	63576	오서진	63642	문정후	63708	이채은	63774	임강	63840	황유성	63906	전경재	63972	최어진	64038	서정우	64104	김진욱	64170	이준호	64236	김진하
63115	최승하	63181	고준범	63247	김선우	63313	전주한	63379	이시우	63445	민승기	63511	박태윤	63577	박지후	63643	문재원	63709	김도윤	63775	손지안	63841	이시원	63907	임다원	63973	권동현	64039	송해림	64105	김민호	64171	마재윤	64237	현윤서
63116	정서윤	63182	이태민	63248	김시우	63314	김준성	63380	하지완	63446	임현우	63512	조연호	63578	이주원	63644	이용우	63710	윤서준	63776	이서준	63842	윤승건	63908	이서율	63974	함정아	64040	우태양	64106	오한진	64172	은찬울	64238	박성민
63117	박예훈	63183	김예준	63249	이소민	63315	신민규	63381	김희웅	63447	정규빈	63513	최하준	63579	이시원	63645	변아린	63711	노재하	63777	안지만	63843	홍예건	63909	차이삭	63975	장우림	64041	이서준	64107	김승주	64173	이재우	64239	임세준
63118	박시운	63184	김시원	63250	이서진	63316	안선우	63382	김지우	63448	강태민	63514	한서우	63580	고재우	63646	김서준	63712	김준영	63778	최하울	63844	김태이	63910	차환희	63976	박은빈	64042	정유담	64108	박윤혁	64174	장하성	64240	구주원
63119	박찬민	63185	이도윤	63251	이해찬	63317	김도현	63383	장리우	63449	박민율	63515	여하람	63581	원우준	63647	김다인	63713	김동현	63779	이시원	63845	이정우	63911	황담우	63977	박정후	64043	김하민	64109	고덕현	64175	김승재	64241	송현우
63120	송우혁	63186	금이현	63252	방예담	63318	김선우	63384	이용주	63450	이시안	63516	이가현	63582	김시홀	63648	김민체	63714	이유림	63780	신명진	63846	고관용	63912	이예한	63978	안현서	64044	윤찬영	64110	신지훈	64176	유지혜	64242	배진선
63121	최동우	63187	이건우	63253	정희도	63319	박진연	63385	이승종	63451	임바다	63517	이나연	63583	김강현	63649	이산	63715	장예은	63781	국시현	63847	김지용	63913	송현우	63979	박지후	64045	정승범	64111	박재우	64177	정해찬	64243	홍지성
63122	신우빈	6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나의 노화속도를 알려준다

전 생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서는 노화속도를 비롯한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고
위험 요인을 미리미리 집중 관리하는 생활습관 성형이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성형을 통한 건강수명의 여정, 마이웰니스 랩으로 시작하세요



개인맞춤 건강수명 플랫폼

myWellness LAB

by NUTRILITE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연말정산 준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신한은행 IRP로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적립금자산 평가액 5천만원 이상이며, 전자금융으로 가입/전환한 경우)
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이 퇴직연금은 예금저축법에 따라 예금저축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한도) 보호됩니다. *개인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0.45%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연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에 해당하여 중도 인출시에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절심사팀 제2025-15522-1호(2025.12.08~2026.12.0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팀 제25-05260호(2025.12.09~2026.12.08)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J U D O

아디다스 컴бат스포츠
ADIDAS COMBAT SPORTS KOREA

WEBSITE : www.acskorea.co.kr
INSTAGRAM : @acskorea_judo
TEL : 02-3019-3808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주)큰산컴퍼니

TEL : 010-7557-1371
ADD : 부산 남구 대연동 243-7



주도코리아 유도복

아디다스 컴бат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57, 9층